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9 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8 년 2 월 15 일

[1]



①



②



③



④

신년교례회

①참석자들과 새해 인사 ②모교 鮮于仲皓총장 인사말 ③소
원성취를 기원하는 시루떡 절단 ④崔主鎬 명예회장 건배제
의 (관련기사 3면)

서울大人 새 각오로 戊寅年 스타트

관삭춘추

2월은 벌써 봄이 시작되는 달이다. 4일이立春이다. 입춘은 그해의 절기에 따라 설날 전에 오기도 하고 그후에 들기도 한다. 올해는 늦게 온 셈이다. 그만큼 봄이 일찍 온다는 뜻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계절풍과 엘니뇨영향으로 이달 하반기에 일부 영동지방과 서해안에 한두차례 폭설이 내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한차례 꽃샘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기온은 평년보다 포근하겠으며 봄도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일찍 시작된다고 한다. 이어 19일이 또 雨水다.

보라! 봄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은가.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옛 선비들도 春來不似春이라는 王昭君을 두

고 지은 古詩를 자주 인용했다. 봄이 와도 봄같지 않다는 뜻은 봄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2월의 조바심어린 春心을 노래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2월은 더욱 「봄다운 봄」을 기다리게 하는 달이다. 25일이 15대 대통령의 취임식이요,

2月の 待春賦

26일은 우리 모교의 졸업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를 도입한지 꼭 반세기만에 우리 유권자의 결단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했고 그에 따라 「金大中정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다.

별단의 수사를 빌지 않더라도 이는 곧 우리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민권의 커다란 신장을 상징한다. 이제 집권당이 라고 해서 목에 힘줄 세우고 오만하지 못할 것이요, 재야세력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억지 투정부리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판가름의 주체가 유권자라는 것을 안 이상, 백성 섬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歲寒의 추위는 IMF의 한파로 더욱 우리를 움츠리게 한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애타게 「봄다운 봄」을 기다린다. 우리 서울大人은 언제나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의 몫을 다 해왔다.

26일 모교를 졸업하고 새 役事に 나설 우리의 새 동문들에게도 예전과 다른 待春賦의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根)

「신년교례회」서 힘찬 새출발 다짐

金회장 “동문 신뢰만이 국난 극복의 열쇠”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동문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崔主鎬명예회장,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鄭宗澤상임부회장, 馬景錫·趙淳·白樂院·姜信浩·李聖秀·金許男·李達雨·裴載湜·宋斗瀾·申榮均·趙南煜·卞柱仙·鄭大哲부회장, 方孝宣감사, 재단법인 관악회 白文基·李乃均·許浚·孫京植·尹美子·姜光夏이사, 朴英俊감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상임이사인 李義淑가정대동창회장, 楊銀淑간호대동창회장, 鄭哲圭공대동창회장, 朴振煥농대동창회장, 尹沃榮자연대동창회장, 李奭熙법대동창회장, 張禮準상대동창회장, 李禮植약대동창회장, 李吉女의대동창회장, 金讚淑치대동창회장, 孔大植경대원동창회장, 魏駿嶽교대원동창회장, 李濟薰신대원동창회장, 姜敏求행대원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인 孫一根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 李炯均

한국프레스센터 전무, 李東和서울신문 주필, 丘月煥연합통신 상무, 대전·충남지부회장인 吳熙弼중도발전연구협의회장, 울산지부회장인 張世一일성(주)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모교에서 高柄翊·權彝赫·趙完圭전임총장,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洪承五대학원장, 朴聖炫학생처장, 李銀哲연구처장, 秦敎勳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냉엄한 시장경제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정부와 외국과의 신뢰,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 정치계 여와 야의 신뢰, 기업과 국민과의 신뢰, 특히 동문간의 뜨거운 신뢰 구축만이 오늘의 국난을 헤쳐나가는 열쇠』라고 강조하고 『케인즈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혈기, 동물적인 기상(Animal Sprit)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욕, 혈기가 둔해지면 기업은 쇠퇴하고 경제는 주저

않게 마련입니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용맹스런 기상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鮮于총장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룬 주축이 서울대인임으로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는데 동창회의 역량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며 『동문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23만 동문 모두가 복을 함께 나누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루떡 절단을 하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어 崔主鎬명예회장이 건배사를 통해 『범패 해를 맞이하여 팔십 후반의 고령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건강을 계속 유지해 10년은 더 일할려고 한다』고 말하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은 물론 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인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變)

광주·전남 지부

신임 회장에 李乃均동문 선출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吳炳文)는 지난 1월 12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宋彥鍾광주시장, 許京萬전남도지사 등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새로 이사에 선임된 李相河(63년 法大卒)무등일보 회장, 李光眞(66년 法大卒)국민은행 호남본부장, 趙俊雄(67년 法大卒)광주고검 차장검사, 鞠大鉉(68년 商大卒)한국은행 광주지점장의 소개가 있었다.

결산·감사보고에 이어진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

乃均(56년 商大卒·삼화도자기 대표·冠岳會 理事)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회장에 金后坤(54년 藥大卒)동문, 감사에 黃海淳(62년 齒大卒)동문을 새로 선임하고 南相奎(71년 文理大卒)감사, 李丞基(76년 工大卒)총무를 재선임했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및 지역대표를 부회장에 선임키로 의결했다.

한편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전임 吳炳文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증정했다.

대전·충남 지부

孟琦錫감사·金星銖간사 선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熙弼)는 지난 1월 12일 유성관광호텔 김홀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97년 결산과 98년 예산 승인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감사에 孟琦錫(55년 工大卒)동문, 사업간사에 金星銖(74년 齒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밴쿠버 지부

車東哲동문 등 「관악상」 수상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崔順模)는 최근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캐나다 이민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펼친 車東哲(60년 文理大卒)동문과 비동문인 이미정(BC TV Journalist)씨에게 「관악상」 대상을 수여했으며 동문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許鍾南(58년 商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柳東星(63년 工大卒)동문, 총무에 張榮喆(66년 法大卒)동문, 재무에 韓光純(71년 獸醫大卒)동문, 섭외에 李輔潤(64년 商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장학금 운영위원장에 崔靑一(58년 文理大卒)동문, 관악상 대상 선정위원장에 黃澤九(64년 美大卒)동문을 선임했다. (變)

미술작품

金 春 玉 作



「자연에서 9529」, 38×57cm, 화선지 먹 채색, 1995.

(작가 약력)

- △68년 미대 졸업
- △81년 현대수목화대전
- △82년 동아미술제
- △83년 아시아 현대 서화명가 연합전
- △83~95년 가톨릭 미협전
- △84년 국제성화전
- △86년 아르코스모 개관기념 초대전
- △87년 현대미술 초대전
- △89년 한국화 신행상전
- △93년 한·중대표작가전
- △94년 서울국제 현대미술제
- △95년 한국미술의 위상전
- △현재 미협, 훈올회, 선면회 회원

주요 목자

- 국정에 바라는 서울대인의 목소리 6~7면
- 崔靑林·崔秉烈동문
- 동문을 찾아서 8~9면
- 李姬鎬동문
- 기획탐방 14면
- 경덕전자·(주)솔빛
- 화제의 동문 23면
- 鄭奇溶·金長彦동문

92년말,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annus horribilis란 낱선 말로 한 해를 총괄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그 덕인지,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 영어사전에도 이 라틴말이 나온다. 풀이인 즉, 「무서운 해: 왕실 스캔들과 원저城의 화재가 있었던 1992년을 가리켜 엘리자베스 2세가 한 말」(엡센스 영한사전).

이 사전에는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올라 있다. annus mirabilis, 뜻은 「驚異의 해: 사건이 많았던 해」다. 곁들여 「특히 영국에서 런던의 대화재와 페스트 유행 등 큰 사건이 많았던 1666년」이란 설명이 붙어있다.

고통을 감내하고 분담하자

이처럼 딱딱한 듯한 사전에도 읽을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요즘에서 생각하니 이 낱선 라틴말들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다. 바로 지난해가 우리의 annus mirabilis 아닌가. 그리고 올해 우리는 IMF라는 이름의 annus horribilis를 맞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새해 어디를 가나 화두는 한결같은 한탄과 걱정뿐이다. 우리가 어쩌다 이 치경이 되었는가. 도



누리나무광장



金昌悅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

버티기·보태기

대체 이 수렁을 벗어날 방도가 있을까.

말들은 많지만 묘방은 없다. 겨우 처방이라고 할 만한 것은 버티기와 보태기 두마디 뿐이다.

「버티기」는 말 뜻 그대로 참고 견디기다. 이 구석 저

구석을 피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변통할 것은 변통을 해서, 살림을 지탱할 도리밖에 없다. 고통의 감내요, 고통의 분담이다. 그런 의미에서 버티기는 나누기다.

힘·마음 합쳐 하나 되어야

「보태기」는 다르다. 보태기는 더하기다. 힘을, 마음을 합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낱말을 더한 값은 크다. 그 한 사례를 우리는 「金모으기」에서 보고 있다. 버티기의 고통 분담은 보태기의 고통 극복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버티기에 익숙하나 보태기에는 미숙한 것 같다. 6·25와 가난을 버티기로 살아남은 경험은 있으나 보태기로 무엇을 이룩한 경험은 별로 없다. 우리 정치의 여·야 관계, 노·사관계, 이익집단끼리의 관계 등등이 모두 그러했다. 요즘 IMF 轉禍爲福이란 말을 자주 듣지만, IMF로 하여 우리가 보태기의 요체를 터득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轉禍爲福일이 틀림없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한국은 없다」 현상 극복하자

丁世鉉(71년 文理大卒) 민족통일연구원장

지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어 있다.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WFP주도하의 대북 식량지원, 미·북 중심으로 가는 4자회담 등이 그 실례다.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와 「한반도화」의 비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때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제화」가 심화되면 통일문제는 현

상고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당사자 몫을 높임으로써 「국제화」와 「한반도화」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국제화·한반도화의

균형 회복해야

남북당사자 몫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복원해야한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었을때 남북언론이 모두 이를 대서특필했고 세계는 우리를 축복했었다. 그후 남북이 머리를 맞대

고 앉아 분과위 구성·운영합의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3개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3개 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합의서 등 8개나 되는 부속합의서를 합의·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93년 1월 29일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남북대화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오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은 일보직전에 좌절되었다.

金泳三 정부 출범후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북의 접촉·대화가 상례로 되는 반면 남북대화는 두절되자 북한의 「通美封南」전략과 관련하여 정부의 전략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통미봉남」은 사실 북한의 대남 열등의식 및 이에 기초한 남한기피전략과 미국의 핵동결 최우선방침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 이행체제 복원 시급하다

다만,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당국간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민간차원의 접촉·교류에 정경

합일원칙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우회전략을 쓸 수 있는 입지를 스스로 좁혔다는 것이다.

마침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4자회담 추진과 더불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경분리원칙하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설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IMF체제하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대남 열등의식 그리고 흡수통일 공포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은 없다」 현상을 극복하여 남북한도 있고 주변국도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 크다.



지부 순례

안동 지부

타대학 동창회 화합에 한 몫

글: 金世忠(76년 法大卒·변호사)총무

「本籍이나 國籍을 바꿀 수는 있어도 學籍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명언처럼 안동이란 타향에서 모교의 깃발 아래 동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68년 7월이다. 당시 초대회장에 張驥煥(40년 法大卒·안동대 학장), 부회장에 尹大榮(51년 齒大卒·중앙치과의원장), 총무에 裴元煥(60년 獸醫大卒·경안동물병원장)동문을 선출하여 첫 살림을 시작했다.

안동지부가 타지역 동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72년 「모교 대학신문」 화제란에 기사가 게재된 후부터였다. 제3회 정기총회를 거쳐 선출된 尹大榮회장은 총동창회가 발행하는 월간 회보를 지부 단위로 접수하여 동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좀더 신속하게 총동창회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안동지역에 있는 타대



尹大榮고문



趙東輝고문



沈大榮고문



姜惠遠고문



裴元煥회장



林雨夏부회장



李英仁부회장



洪龍杓총무



金世忠총무

기대회」는 안동지역동창회에 친목을 다지는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80년 이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축구대회」로 종목을 바꾸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교수)·林雨夏동문, 필자와 洪龍杓(79년 師大卒·안동대 교수)동문이 총무로 선임돼 본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동창회 명부를 지난 97년 11월에 새로 발행했다.

본회는 또한 다른 어떤 곳보다 유난히 長幼有序의 전통을 존중하여 항상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고 각종 경조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왔다. 지난해 裴회장의 아들 결혼식에도 많은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기쁨을 나눴다.

IMF의 한파 속에서도 상호간에 협력과 관심으로 뚝뚝 뭉친 우리 동문들은 올 봄 和福藝術村에서 개최할 춘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모교 발전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낼 것이다.

안동대 교수 주축 68년 첫 살림

동문 47명 長幼有序로 뚝뚝 뭉쳐

학교 동창회와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77년 10월 본회가 주축이 되어 「제1회 在安 각대학교 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동창회 등이 참가했다. 당시 林雨夏(62년 齒大卒·임치과원장)동문을 주장으로한 본회팀은 장려상에 머물렀지만, 이후 「在安 각대학교 친선 경

현재 총4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본회는 특히 안동대학교 교수 및 조교수,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문들이 모두 31명으로 지부회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裴元煥동문은 지난 96년 임원개선을 통하여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李英仁(65년 農大卒·안동대

건강상식

두부는 고기만큼 좋다

姜成宗(59년 藥大卒)美Biodyne연구소장



두부의 주성분을 보면 단백질은 물론이요 그 밖의 이로운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제니스테인(Genistein)이라는 물질은 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는다.

또한 두부 속에는 다이드제인(Daidzein)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암을 억제하며 성인병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이 밖에도 두부 속에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 사포닌, 피토스테롤, 페놀산, 레시틴, 식물산(植物酸) 등 몸에 이로운 물질이 많이 있다. 두부를 먹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우리 국민이 두부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참으로 복 받은 일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고기를 적게 먹는 민족이었지만, 두부나 콩 때문에 이만큼 이나마 지탱해 온 것이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것은 아미노산이 되어 피속으로 들어간다. 이 때 단백질의 질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양이 달라지며, 체내 효소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형태도 달라진다. 가령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에 싸인 채로 섭취되므로 체내 흡수가 어렵거나 매우 천천히 일어난다. 이와 달리 동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의 방해가 없으므로 바로 소화가 되고 대부분 모두 흡수가 된다.

“암을 억제하며 성인병 원인의 차단 기능 있다”

그렇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두부를 예로 들어 보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 콩을 먹을 때는 두부를 만들어 먹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콩을 가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섬유질이 부서지고,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것이 비지 형태로 제거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된다.

두부뿐 아니라 콩으로 만든 것은 모두 건강에 좋다. 콩국수, 두유, 된장을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순두부, 두부 찌개를 자주 먹으라고 권하고 싶다.

국정에 바라는 서울大人の 목소리

시장경제 논리가 통하도록
진입·퇴로장벽 철폐해야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최근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니까. 경제가 벼랑끝에 몰려있습니다. 밤잠이 안옵니다』

확실히 金大中당선자는 벼랑끝에 몰린 경제위기 상황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지워진 짐은 너무 무겁다. 그 짐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부담이다.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外換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당장 다급한 과제다.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바꾸거나 단기외채의 상환연기(롤오버)를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상업은행에 설득해야한다.

외채 이자부담 줄여야한다

우리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벌떼처럼 몰려든데서 빚어진 「유동성위기」인 만큼 외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경제를 정상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외채의 금리를 적절히 조절해서 외채이자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외채의 원리금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제금융기관들은 연리 10%가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국제금리수준으로 낮추어 외채의 이자부담을 낮추지 않고서는 차기정부의 금융외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1천5백79

억달러의 장단기외채는 너무 감당하기 벅찬 액수이고 이자만도 연간 1백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국제금융기관의 압력에 굴복, 고금리조건을 수용할 경우 이자만도 연간 1백50억달러에 이르러 결국 지불유예(모라토리엄)사태를 겪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때문에 金大中정부는 외채상환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경제운영에 부담을 덜 주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외환위기와 같이 닥친 금융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은 돈이 제대로 돌지않고 이자가 비싸져 도산직전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이런 금융왜곡현상이 더 지속되는 경우 살아날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져 기업생존이 어려운 판에 고금리부담까지 겹치면 기업은 대부분 부실화되거나 도산하기 십상이다. 결국 외국자본의 M&A(인수합병)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멕시코처럼 우량기업이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조조정이 지나쳐 우리의 생산기반과 수출기반이 무너지면 외채상환이고 IMF위기극복이고 모두가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金大中정부의 긴급한 과제는 금융흐름을 정상화시키고 고금리를 적정금리로 낮추는 것일 것이다.

金大中정부는 우리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국제적 관행과 제도

에 맞게 제도를 고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각종 규제를 혁파해서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경제논리가 통하도록 진입장벽이나 퇴로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금융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련법 개혁, 정부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기능조정, 고비용 정치구조를 뜯어고치기위한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런 개혁의 고통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고, IMF체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부문인 재벌의 구조개혁까지 요구하는 판인데, 정부쪽에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金大中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시장경제의 창달에 두고 있는데 세계경제의 추세로 보아 시장경제 질서를 다지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強者만 살아 남고 弱者는 죽는 「시장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적절히 조정기능과 지도기능을 발휘해서 경쟁의 탈락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 싶다.

金大中당선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후세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민들도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崔靑林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본보 논설위원)

63년 상대 경제학과 졸업
80년 조선일보 경제부장
88년 조선일보 주간국장
89년 조선일보 출판국장
95년 조선일보 편집국장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감사
97년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대통령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

“긴급한 과제는
금융흐름을
정상화시키고
고금리를
적정금리로
낮추는 것”

“정부가
조정기능과
지도기능을 발휘해서
경쟁의 탈락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해야”

국정에 바라는 서울大人の 목소리

국가경쟁력을 회생시키는 노동정책 펼쳐야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국가경쟁력 회생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사태 직전에까지 이르고 모든 근로자가 실업대란으로 좌불안석의 곤경에 처한 근본원인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국가경쟁력의 회생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정 전문분야의 과감한 수술을 통한 국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유연한 「정리해고제」 도입 시급

국가혁신은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도, 기업도, 근로자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노·사·정의 고통분담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고통분담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과거와 같은 총파업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회생의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제의 도입이다. 현재와 같이 까다로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로는 우선 외국투자가로부터 긴급한 외화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력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을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우리 기업

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기업은 고용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종업원의 고용조정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도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종업원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ILO도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용인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대량해고의 경우 행정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의 활발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신규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해고제한 규정이 까다로운 유럽국가들은 기업들이 채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10%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해야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업은 이를 고용조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임금동결이나 삭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Work Sharing), 배치전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도 안될 경우에 정리해고를 검토해야 한다.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93년 종업원 10만명중 3만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었으나 노사합의로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당초의 해고계획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자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획기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금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적용대상을 전근로자에게로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실직되더라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재취업 훈련을 받으며 직업알선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로 생계보호

또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무기명 장기채 판매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학비와 의료비를 저리융자해주고 최저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품교환권(Food Stamp)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도산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임금과 퇴직금중 최우선 변제부분을 지급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도산기업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도 고쳐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연공급 임금체계하에서는 나이만 차면 꼬박꼬박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 하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 임금은 너무나 복잡하다. 기본급 외에 각종 상여금, 수당, 생계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여 주는 사람이나 받는



崔秉烈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64년 법대 행정학과 졸업
74년 조선일보 정치부장, 사회부장
80년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사
88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89년 문화공보부 장관
90년 공보처 장관
노동부 장관
94년 서울특별시장
12, 14, 15대 국회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 대표

사람이나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성과배분제」로 생산성 증대

임금이 본래의 근로동기유발기능을 발휘하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에 연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이트칼라는 운동선수와 같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시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더 받고 손해가 나면 덜 받도록 해야 한다. 성과배분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면 수익의 1/3은 근로자에게 성과배분 보너스로, 1/3은 자본주에 대한 배당으로, 그리고 나머지 1/3은 사내유보로 남겨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 자본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대통령 부인 李姬鎬여사

“教育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담:李世震 편집주간〉

한 남자의 아내이기보다 평생의 동지와 동역자로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아온 李姬鎬(50년 師大卒)동문.

해방직후인 1946년, 모교가 국립 대로서 첫 출발을 하던 그 해에 사범대 영어교육과에 입학, 1950년 제3회로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사범대 대표 및 「호국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학생활동을 펼쳤다.

IMF의 경제 위기속에 외국손님 맞이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李姬鎬동문을 鄭宗澤 常任副會長과 李世震 事務總長이 직접 만나 진심어린 축하 인사와 함께 모교 출신의 첫 영부인으로서 재학시절의 추억담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우선 金大中선생께서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金大中 차기대통령께서는 경제 난국을 수습하느라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내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특별히 내조라 할 것은 없어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면에서 돌봐드리고 있고, 건강도 좋으신편이라 다만 음식면에서 기름기는 피하고 야채와 생선을 많이 드시게 해요. 그러나 요새는 「안가」에 많이 게재해서 돌봐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죠』

— 저서인 「나의 사랑 나의 조국」(1992년 명림당판)에서 두 분의 사이를 同役者 관계로 표현했는데.

三 대통령의 초대로 관저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곳을 처음 개방하셨다고 하면서 「孤島와 같이 외로운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차기대통령의 부인이 되신 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청와대로 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자유롭게 못하니까 그 전에 만나지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 모교 재학시절, 학업과정 등에 얽

하기 위해 당시 교육부 장관격인 언더우드박사를 만나 의논했더니 張利郁박사(당시 사범대 학장)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좌익학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을 뵈니까 차마 그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 모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신 후 교육학과로 전공을 바꾼 이유는.

『사범대의 본령은 교육학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해도 전과가 허용됐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른 과로 많이 옮겼지요』

—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모임이나 보람됐던 활동은.

『이화고녀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2년을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화여전을 다닐 당시 44년에 일본에서 학교를 자연과학 계통의 의전만 남기고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 양성과」로 개칭하고서는 재학생들에게 모두 졸업장을 주고 각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요. 저도 충남 예산의 삼교 국민학교 부설 연성소에 부임하여 15세에서 20세 사이의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상급생들을 가르치거나 농사일을 돕기도 했어요. 요즘도 우리 남편은 호국식민을 가르쳤다고 가끔 놀리기도 하죠』

『해방후에 다시 이화여전으로 편입하려고 했지만 당시 과장이셨던 鄭芝溶(시인)선생께서 시험보고 2학년을 다니라고 하잖아요. 가뜰이나 후배들과 한반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주위에서 세월이 어수선하니 여자로서는 안정된 교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셔서 당시 중등교원양성소를 다니면서 중등교사자격증을 따기도 했어요. 한번도 써먹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그해 9월(46년) 모교에 입학했지요. 그때도 사범대에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남학생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 경험도 많은 누이같은 여학생이라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도 제가 직접 등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요』

— 기억에 남는 고마운 은사와 수강한 강좌에 대한 추억은.

『처음 영어교육과에 다닐 때 皮千得 선생님께서 저에게 교육학과로 전과하지 말라고 많이 말리셨어요. 교육학과에서는 윤리학을 가르치시고 기독교학생회를 이끌어주셨던 金錫穆선생님과 任哲宰선생님께 언제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철학을 가르치셨던 金桂淑선생님의 강의도 참 좋았어요』

—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모교를 졸업한 것이 50년이니까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죠. 시대가 너무 바뀌었고, 교육의 내용도 급격히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졸업할 당시 논문을 써서 4년간의 배움을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 이제 「준비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실텐데, 평소 생각해 온 바람직한 「퍼스트 레이디」상은.

(9면에 계속)

“굴곡 많은 삶 후회는 없어”

문리대와 사대 동시 합격

학창시절 누이역할도 톡톡히

『결혼할 때도 사람 하나 보고 했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치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어요. 진실되고 바른 모습과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감동해서 결혼했지요. 지금도 그러한 점은 여전하구요. 그러한 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여성들처럼 자기자랑 결혼 생활이나 행복을 바라지 않았어요. 일생을 통해서 굴곡이 많은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는 없고 고생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으로 생각해요』

— 청와대로 이사하시는 소감은.

『그저 두렵고 그러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냥 좋은 자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요전에 金泳

원 추억은.

『1946년 제가 입학할 당시 국립 서울 대학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리대와 사범대 두 대학을 합격했는데 국대안 반대가 심했어요. 당시 군정치하에 동송동에 있는 문리대 본부 앞에 기마병들이 지키고 있어 차마 용기가 없어서 등록원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등록 마지막 날이었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사범대쪽으로 가면서 이제는 단과대학별로 지원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여학생과 함께 사범대쪽으로 가서 등록을 했지요. 들어가보니 사범대가 단과대 중에서도 좌익이 극심해서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좌익 여학생은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수업중에 들어와 서있기도 했어요. 문리대로 전과



좌로부터 鄭宗澤편집인, 李姬鎬여사, 李世震편집주간.

(8면에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스트 레이디상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대에 따라 그 모습과 해야 할 일들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죠. 모두들 영부인이 숨어서 조용하게 일해주길 바라는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보고 드릴 수 있잖아요. 차마 대통령께 못 전해드린 이야기를 저는 서슴없이 전하고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드리기도 할 거예요. 아마 하도 야당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러한 저의 역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 모교 졸업 후에 미국 램버스대학과 스카렛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평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데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졸업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크로(J.R. Crowe)목사(당시 대구 군목)께서 주선해 주셔서 미국유학을 갈 수 있었죠. 58년 귀국 후에는 이화여대에서 약 3년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고들 하는데 우선 암기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해야만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은 많이 배운 여성들이 더 男兒選好 사상이 강한데 이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먼저 아들, 딸을 평등하게 가르치고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 여성의 사회 참여와 활동에 관련해 평소 생각은.

『여성들이 잠재된 능력이 많아요. 이러한 점들을 정부나 사회에서 발굴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성을 비하하는 쪽이 또 바로 여성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여자 상관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TV프로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남편의 경우에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성을 스스로 비하하는 말들도 많은데 이러한 태도는 어서 빨리 버려야 해요. 여성들 자신이 많이 교육받고 자각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 저는 YWCA에서 총무와 상임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구소에서 창립 회원으로서 꾸준히 여성운동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면서 힘을 키워 나가야 할 때

요. 미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대학에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이용하여 첨단산업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해요. 앞으로 모교가 세계적인 일류대학이 되도록 시설 투자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 실력을 바탕으로 앞서 나가야겠지요』



— 평소 모교와 동창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흔히 모교 출신들이 이기적이라고 해요. 이러한 점은 타파해야 합니다. 너무 특권만 누리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는데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될 수 있는대로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IMF시대에 1차적인 교육개혁과 기술개혁으로

석사학위 취득 이화여대 출강 “초등교육·가정교육 중요” “학력보다 능력 우선해야”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죠. 저는 내조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옆에서 대통령이 못 챙기는 부분이나 국민 저변의 소리를 전해주는 비판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일산자택에 걸린 문패

부모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여입학제도와 같은 것도 좋지만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보다는 철저하게 실력을 쌓고 그래서 졸업시험을 쳐서 나오기는 어려운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지만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써준다면 모두들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을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진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면에서는 초등교육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알 수

YWCA 총무·상임위원 역임

“여성의 사회 참여 폭 넓혀”

“교육·기술개혁에 솔선수범”

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사회적 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희망과 용기로 열어 나가야 할 책무를 맡고 있는 서울대인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교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800위 안에도 못들어 간다고 알고 있어

앞장서야만 민족 국가의 대학인으로서 세계속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영광과 기대를 받는 만큼 책임도 느끼는 동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정리=李美連기자)

동정

수상

▲金柱津(54년 法大入·아남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월 8일 미국에서 열린 세계 반도체 산업 50주년 기념식에서 「반도체 패키징부문-특별공로상」을 수상함.

▲姜敏求(62년 行大院卒·유성개발 회장·行大院同窓會長)=제 78차 라이온스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지난 1월 24일 「대통령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음.

▲朴鍾喆(66년 文理大卒·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1월 22일 「초전도양자간섭장치」를 개발한 공로로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자상」을 수상함.

▲金夏中(69년 文理大卒·외무부)=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南재(70년 音大卒·수원시

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최근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음악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음.

▲高永宙(71년 工大卒·대검찰청)=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元培(72년 工大卒·대통령비서실)=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朴吉祥(76년 社會大卒·노동부)=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許範道(76년 行大院卒·중소기업청)=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東旭(77년 環大院卒·환경부)=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李東揆(78년 社會大卒·공정거래위원회)=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京會(78년 師大卒·교육부)=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斗星(82년 行大院卒·병무청)=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相敦(85년 行大院卒·서울시)=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李秉吉(85년 行大院卒·국회사무처)=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金致雲(38기 ACAD·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최근 한국형 가족묘를 고안, 장묘 문화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함.

▲蔡日炳(41기 ACAD·총무처)=지난 12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97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함.

이동·선임

▲吳成煥(57년 法大卒·前 대법



원 판사)=지난 1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

4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장에 선임됨.
▲南時旭(58년 文理大卒·문화일보 사장)=최근 신문회관 재설립추진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李成茂(60년 文理大卒·정신문화연구원 교수)=최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李秀範(60년 法大卒·인하대 교수·백림조세연구원장)=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됨.

▲李華榮(61년 工大卒·모교 교수)=지난 1월 1일자로 한국공업학회장에 취임함.

▲盧明濤(61년 法大卒·한국외대 교수)=최근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尹世榮(61년 法大卒·SBS 회장·本會 副會長)=최근 신문회관 재설립추진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柳敏榮(61년 師大卒·단국대

교수)=최근 한국연극사학회 회장에 선임됨.

▲沈英輔(61년 醫大卒·길병원 기획조정실장)=최근 가천의대 교수 임용 심사위원장 및 입학 공정관리위원장에 선임됨.

▲李相完(61년 醫大卒·정형외과 원장)=최근 터키에서 개최된 국제 재난 및 교통의학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됨.

▲元喆喆(62년 法大卒·농협중앙회 회장)=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사회에서 농업담당 총괄이사에 선임됨.

▲李存熙(63년 師大卒·서울시립대 교수)=최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金始中(63년 商大卒·고려대 명예교수)=최근 열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제2대 원장에 선임됨.

▲崔靑林(63년 商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 論說委員)=최근 신문회관 재설립추진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 論說委員)=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논설주간에 선임됨.

▲李炯均(64년 文理大卒·프레스센터 전무·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12일 열린 대한언론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됨.

▲崔賢植(64년 藥大卒·중외제약 부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함.

▲金學俊(65년 文理大卒·인천대 총장)=최근 잠실회관에서 열린 피츠버그대 한국총동문회에서 제5대 회장에 피선됨.

▲趙東行(65년 工大卒·인하대

(11면에 계속)

「질확대경검사 평가자 인증」 받아

고려대 구로병원 徐浩錫동문

미국 자궁경부암학회로부터 최근 「질확대경검사 평가자 인증(CRA)」을 받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과장 徐浩錫(75년 醫大卒)동문.

질확대경은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 그러나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정확도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미국 자궁경부암학회는 지난 92년에 이론과 실기 심사를 통한 전문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20여명이 인증을 받았다. 동양권에서는 徐동문이 처음.

자궁경부암의 1차검사로 세포진검사 방법이 있으나 채취 선별 판독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때문에 확진을 위해 암바이러스 검사나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 질확대경검사



를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과 국내에서 자궁경부 확대촬영진을 주관하는 평가기관에서 전문 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인 徐동문이 공식적인 인증을 받게됨으로써 국내에서도 기초적인 세포진 검사는 물론 질확대경검사 등의 신뢰도를 높여 자궁암 후진국의 오명을 벗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美)

「헬레나 루빈스타인賞」 수상

생명과학연구소 柳明姬동문

지난 1월 8일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거행된 제1회 헬레나 루빈스타인賞의 아시아 지역 수상자 柳明姬(76년 自然大卒)동문.

다국적 화장품 기업인 헬레나 루빈스타인의 후원으로 제정, 2년마다 시행되는 이 상은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여성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74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크리스천 두브박사와 페데리코 마요르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94명의 후보중 각 1명씩 총4명을 선정했다.

그동안 柳동문은 단백질이 합성된 후 어떻게 3차구조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단백질의 굽어짐(폴딩)



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단백질의 폴딩과 안정성 연구에 대한 결과는 국제적으로 최고권위의 학술잡지인 네이처 구조생물학지에 2년 연속 게재되는 등의 쾌거를 이룩했다. 柳동문은 이번에 상패와 함께 상금 2만달러를 받았다.

(美)

(10면에 이어)

교수)=최근 상지대에서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취임함.

▲李永瑞(65년 商大卒·동양매직 사장)=최근 그룹 인사에서 동양매직 부회장 겸 동양토탈 대표이사 자리 옮김.

▲丁鍾得(65년 商大卒·前 벽산 사장)=최근 그룹 인사에서 벽산건설 사장에 선임됨.

▲盧承卓(66년 工大卒·모교 교수)=최근 열린 대한기계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白榮哲(66년 文理大卒·건국대 교수)=최근 한국정치학회장에 선출됨.

▲李樸三(66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차장)=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승진함.

▲趙漢翊(67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대한의료정보학회 평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임됨.

▲金忠世(68년 工大卒·前 대우 부사장)=최근 한국현지법인인 한국쓰리콤 사장에 선임됨.

▲朴紀正(68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동경지사장)=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심의실장에 선임됨.

▲裴基成(68년 文理大卒·대림코퍼레이션 부사장)=최근 단행된 그룹 인사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趙英男(64년 音大入·가수)=지난 1월 12일 동아방송 전문대에서 올해부터 신설되는 영상음악과 교수로 초빙됨.

▲盧富鎬(69년 工大卒·서강대 교수)=지난 1월 3일 열린 한국생산관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車東完(69년 工大卒·KAIST 교수)=최근 열린 한국경영과학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李成俊(69년 文理大卒·한국일보 편집인·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31일자로 한국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겸 편집인에 선임됨.

▲李弘根(69년 商大卒·코오롱상사 전무)=최근 단행된 그룹

인사에서 코오롱상사 부사장으로 승진함.

▲金東炫(70년 行大院卒·성균관대 교수)=최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宋文秀(71년 商大卒·A&C코오롱 전무)=최근 단행된 그룹 인사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함.

▲郭贊浩(71년 新大院卒·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 사무국장)=지난 1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복지기금관리위원회에 선임됨.

▲成樂承(71년 行大院卒·前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동국대 교수)=지난 1월 12일 불교방송 이사

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李憲出(72년 商大卒·LG그룹 부사장)=최근 단행된 그룹 인사에서 LG신용카드 사장으로 승진함.

▲李明哲(73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嚴基一(75년 醫大卒·한양대 교수)=최근 열린 제18차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그룹 전무)=지난 1월 1일 단행된 인사에서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함.

▲林英鎬(76년 工大卒·코오롱 SEED50 전무)=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코오롱 유통 대표 및 코오롱SEED50 부사장으로 승진함.

▲梁浩一(76년 環大院卒·한양대 교수)=최근 아미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자인포럼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羅駟柱(81년 師大卒·모교 교수)=최근 모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교육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됨.

▲鄭壯皓(14기 AMP·LG텔레콤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 인사에서 LG동 부회장으로 승진함.

▲金東元(27기 AMP·웅진코웨이 그룹종합기획실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웅진코웨이개발 대표이사 및 웅진코아 부회장으로 승진함.

▲李瀧培(28기 AMP·前 해태제과사장)=지난 1월 5일 종합인테리어 업체인 (주)풍진아이디 그룹 회장에 취임함.

▲金周成(30기 AMP·코오롱개발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코오롱호텔 사장을 겸임하게 됨.

▲李炳彥(2기 AIP·중외제약 사장)=최근 단행된 그룹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함.

▲朴齊赫(26기 ACAD·기아자동차 사장)=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기아자동차 판매 사장을 겸임하게 됨.

행사·출간

▲朴善奎(49년 醫大卒·의학신문 회장·대한관리협 회장)=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9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함.

▲鄭元植(54년 師大卒·대한적십자총재·本會 副會長)=지난 1월 23일 남산 외교구락부에서 북한 이탈주

민 1백여명을 초청, 「설날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가짐.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本報 論說委員)=최근 사무실 이전으로 연락처가 변동됨. (전화: 724-2243, 팩스: 733-6673)

▲張在植(56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1월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새 정부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함.

▲韓鏞徹(56년 醫大卒·삼성의료원장·대한결핵협회장)=최근 대한결핵협회에서 제47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함.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일교류협회장)=최근 관상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대권을 잡았거나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의 운명을 분석한 「역사를 움직인 얼굴」(동학사刊)을 출간함.

▲金昌悅(58년 法大卒·방송위

원회 위원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16일 방송위원회 대회의실에

서 제15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 평가 토론회를 가짐.

▲韓東羽(59년 法大卒·前 한솔종합금융 사장)=최근 정치인, 관료, 군인 등 우리 사회를 장악해온 권력자들의 유형을 회화적으로 꼬집은 소설 「비석밖고 한양천리」(삶과 꿈刊)를 펴

냄.

▲李澤求(59년 農大卒·신흥대 교수)=최근 영어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만인의 3시간 영

어」(계축문화사刊)를 출간함.

▲金昇卿(59년 商大卒·기업은행장)=지난 1월 23, 24일 양일간 호남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지역 및 전북지역의 중소

(12면에 계속)

최근 새로 결성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각계 동문들이 대거 참여,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에 간략히 소개한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金大中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2월 22일 차기 정부출범까지 경제위기 극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금당선자측 대표로 金龍煥(56년 法大卒)자민련 부총재를 임명했다.

또한 林昌烈(66년 商大卒)경제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정부추진 위원에 柳宗夏(59년 文理大卒)외무부 장관, 鄭海潯(68년 法大卒)통상산업부 장관, 李永鐸(69년 商大卒)총리행조실장, 金永燮(70년 商大卒)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기용하고 국민회의 張在植(56년 法大卒)국회의원, 金元吉(68년 商大卒)정책위의장, 자민련 李台燮(62년 工大卒)정책위의장, 許南薰(62년 法大卒)국회의원을 위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난 12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국민회의 李鍾贊(72년 行大院卒)부총재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인수위원으로 국민회의 趙贊衡(62년 法大卒)국회의원, 辛建(63년 法大卒)前법무부 차관, 李海瓚(72년 文理大入)·朴正勳(29기 AMP)국회의원, 金正吉(28기 ACAD)前국회의원을 위촉했으며 자민련 李東煥(57년 文理大入)·李健介(63년 法大卒)·咸錫宰(63년 法大卒)·李良熙(66년 法大卒)·韓瀾鮮(74년 行大院卒)·鄭宇澤(79년 行大院卒)국회의원과 趙富英(12기 ACAD)前사무총장, 崔在旭(36기 ACAD)총재비서실장을 선정했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

金大中대통령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을 맡을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朴權相(52년 文理大卒)동아일보 고문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과 金光雄(62년 法大卒)모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심의위원 △고문: 朴東緒(53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 △위원: 金哲洙(56년 法大卒·本報 論說委員)모교 교수, 李世中(57년 法大卒)前변협회장, 林東源(61년 文理大卒)아태재단 사무총장, 金光雄모교 교수, 朴相千(62년 法大卒)국민회의 원내총무, 朴範珍(64년 文理大卒)국민신당 사무총장, 鄭相千(62년 行大院卒)자민련 부총재 ◇실행위원: 崔洙秉(63년 商大卒)총재 특보, 安文錫(65년 商大卒)고려대 교수, 李啓植(71년 商大卒)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金範鎰(73년 商大卒)총무처 조직국장, 金秉燮(76년 農大卒)모교 교수, 李康來(84년 行大院卒)총재특보.

노사정위원회

지난 1월 15일 국가부도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창립됐다.

위원장에 국민회의 韓光玉(60년 文理大入)부총재를 위촉하고 노측대표에 朴仁相(28기 AMP)한국노총위원장, 裴錫範(33기 AMP)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리, 사측대표에 崔鍾賢(50년 農大入)전경련 회장, 정부대표에 林昌烈(66년 商大卒)경제부총리, 李起浩(70년 商大卒)노동부 장관, 정당에서 자민련 李肯珪(9기 AIP)국회의원, 한나라당 李康熙(30기 ACAD)국회의원 등을 위촉했다.

(變)

(11면에 이어)

기업 금융인을 초청, 간담회를 가짐.

▲李秀洪(59년 文理大卒·전국 문화원협회장)=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2회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짐.

▲姜宗遠(60년 法大卒·성덕전문대학장)= 최근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기간장교 및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새 시대의 새 가치관」에 대해, 경북 영천시청에서 청소년 선도위원 및 관련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특강함.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지난 1월 24일 서울 YMCA에서 「IMF 파동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함.

▲金泰俊(61년 法大卒·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광주 등을 방문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裴茂基(62년 商大卒·중앙노동위원장)= 지난 1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1천여명을 초청,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특강함.

▲申尙玉(63년 家政大卒·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 지난 1월 8일 교원복지회관에서 「가정과 교육의 종합적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朴英哲(63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 지난 1월 15일 은행회관에서 「98년도 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대응」을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가짐.

▲張詰薰(63년 商大卒·조흥은행장)= 지난 1월 22일 경기 조흥은행 안산지점에서 반월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짐.

▲李鍾善(63년 醫大卒·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 최근 보라매병원에서 환자 및 지역주민을 초청, 「저신장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강좌를 개최함.

▲安光菴(64년 法大卒·한국표준협회장)= 지난 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IMF 지원체제하의 새 정부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卞柱仙(64년 師大卒·걸스카우트연맹 총재·本會 副會長)= 지난 1월 15일 연맹회관에서 「한국걸스카우트 50년사」출판기념회를 가짐.

▲司空晝(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소 이사장)= 지난 1월 20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

망씨를 초청, 「세계화와 국가의 주체성」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崔弘健(66년 法大卒·특허청장)= 지난 1월 6일 특허청 대회의실에서 변리사 및 발명 관련인사를 초청, 「신년하례회」를 가짐.

▲李鍾英(63년 音大入·경희대 교수)= 지난 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음악회」 음악

감독 겸 지휘자를 맡음.

▲康奉均(69년 商大卒·정보통신부장관)= 지난 1월 15일 모교의 신소재 공동연구소에서 모교 최고산업

전략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강함.

▲洪哲(69년 商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 지난 1월 15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IMF시대의 국토관련부문 대응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가짐.

▲崔洸(70년 商大卒·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97서울국제장애

인복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 자원봉사자 46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짐.

▲徐東震(70년 醫大卒·고려대 교수)=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제2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rapies for Vital Hepatitis」학회에 참석함.

▲趙炳倫(70년 醫大卒·국립보건연구원장)= 최근 국립보건원에서 「장티푸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朴有光(66년 法大卒·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지난 1월 26일 힐튼호텔에서 「98년도 경제운용 방향

과 통상·산업정책」을 주제로 신경영혁신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교수)= 지난 1월 15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LG경영인 포럼에서 「I-MF시대의 사업구조 조정전략」을 주제로 강연함.

▲左承喜(71년 商大卒·한국경제연구원장)= 지난 1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秋俊錫(71년 商大卒·중소기업청장)= 지난 1월 7일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함.

▲徐晶仙(73년 音大卒)= 지난 2월 3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작곡 발표회를 가짐.

▲黃仁基(75년 美大卒·성균관대 교수)=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97 올해의 작가상」 기념전을 가짐.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 회장·本會 副會長)=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98 축구엑스포」에 참석함.

▲朴宣陽(75년 醫大卒·모교 교수)= 최근 미국에서 열린 「혈액 학회」에 참석함.

▲徐敬德(76년 美大卒·서양화가)= 최근 서울갤러리에서 「사유의 뜰」을 포함한 작품 30여 점을 출품, 4번째 개인전을 가짐.

▲全載明(76년 醫大卒·울산대 교수)=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67차 AO/ASIF Course Davos」학회에 참석함.

▲鄭天基(83년 醫大卒·모교 교수)=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간질 학회」에 참석함.

▲黃惠田(85년 音大卒)= 최근 예술의전당에서 음대동창회의 후원으로 베토벤 소나타 등을

중심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權호정(90년 音大卒)= 지난 2월 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車卿雅(91년 音大卒)= 지난 2월 1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짐.

▲金仁敬(96년 音大卒)= 지난 2월 13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등을 중심으로한 3번째 첼로독주회를 가짐.

▲金在哲(4기 AMP·동원그룹 회장)= 지난 1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해양문화재단 사업설명회 및 기념리셉션을 개최함.

▲趙錫來(11기 AMP·효성그룹 회장·한강포럼 회장)= 지난 1월 16일 롯데호텔에서 모교 朴東奎(61년 文理大卒)교수를 초청, 「문학과 인생」이란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가짐.

(정리=李美連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박정석 군(92년 工大卒)·이경아 양=2월 21일 12시30분.

*이석재 군·박진희 양(91년 藥大卒)=2월 21일 14시.

*고명천 군(92년 醫大卒)·김희성 양=2월 21일 15시30분.

*이용만 군(91년 人文大卒)·이선주 양=2월 23일 11시.

*윤상선 군(90년 自然大卒)·주현경 양=2월 24일 13시.

*이정열 군(96년 工大卒)·장은경 양=2월 25일 13시.

*심창수 군(93년 工大卒)·박소현 양=2월 28일 14시.

*이진 군(91년 人文大卒)·노향란 양(91년 社會大卒)=3월 7일 12시30분.

*정강모 군(87년 自然大卒)·이은영 양=3월 7일 14시.

*김성규 군(96년 大學院卒)·박혜선 양=3월 14일 12시30분.

*서동수 군(93년 農大卒)·채송화 양=3월 14일 14시.

*이태희 군(90년 師大卒)·이지영 양=3월 15일 12시30분.

사법연수원 임관서열 1·2위

鄭桂先·沈希靜동문 우먼파워



沈希靜동문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사법연수원 27기생 2백90여명의 수료식에서 임관서열 1, 2등을 모교 여성 동문이 차지, 우먼 파워를 과시했다.

법대 선후배 사이인 鄭桂先(93년 法大卒)동문과 沈希

靜(94년 法大卒)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 두 동문은 95년 사법시험에도 나란히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임관순위 1위에 오른 鄭동문은 재학시절 법대 동아리인 「노동법 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졸업 후인 92년 7월 본격적으로 사시를 준비, 이같은 영광을 안았다. 또한 임관순위 2위로 국내 4대 로펌중 하나인 「세종」에서 일하게 된 沈동문은 똑똑하고 당찬 신세대 법조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信)

모임 採訪

녹색소비자연대

「위해식품 고발센터」 호응 만점

“환경 생각하는 소비문화 추구해야”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환경의 시대는 더 이상 소비를 미덕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는 소비생활과 소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96년 10월 창립된 「녹색소비자연대」(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처음 설립 당시에는 李正子(63년 文理大卒·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동문과 李正典(71년 師大卒·모교 교수·경실련 환경개발위원) 동문이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해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金明子(66년 文理大卒·숙명여대 교수), 金文煥(69년 法大卒·국민대 법대학장) 동문 등이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제2대 金聖壽(81년 師大卒) 사무총장과 李景幸(75년 農大卒·서울시립대 교수) 이사 등 많은 동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고발센터와 소송지원변호인단 운영, 녹색소비자행동 21네트워크의 일

환으로 녹색상품과 그린슈퍼마켓운동을 펼쳐 왔으며, 소비자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위해식품고발센터 등으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종 포럼 및 소비자 관련 조사 사업을 펼쳐 소식지(계간), 리포트(월간)를 발행,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환경소비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李正典대표는 『사회봉사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환경소비운동에 중요성과 방법을 일깨우고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제자 및 젊은 학생들을 묶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1세기에 기업과 정부의 부패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민단체이며, 이러한 의미속에 환경소비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녹색소비자연대나 경실련 등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산재하고 있는 현 시기에 IMF의 바람은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화번호 763-4972) (美)



97년 10월 「녹색소비자 포럼」

추억의窓

북한 궐석재판서

15년 징역형 받아

朴善奎(49년 醫大卒)의학신문사 회장



의대 제3회 졸업사진(원내 필자)

학창시절에 관한 얘기는 격동기를 살 아온 기성 세대에게는 너무나 벅찬 감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향을 이북에 두고 온 실향민의 경우 남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당시의 학창시절은 훈장없는 무명 용사같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고나할까.

공산당과 투쟁하다 이북의 궐석재판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필자는 인민군사령부가 서울에 입성시 현상금 5백만원을 걸고 체포명령을 낼 정도로 지목받았다.

그러나 일가친척이 없는 대부분의 이북출신 학생들은 가난과 굶주림의 가혹했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라」는 요즘 세대와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차비가 없어 전차도 못타고 걸어가니 며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이 없어 함춘원 교수님의 강의와 노트에 의존하며 그 어려운 의학공부를 해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

그리고 그때만해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른바 좌익학생들이 많아 허구한 날 밀고 당기는 이념분쟁으로 캠퍼스는 연일 아수라장이었다. 그 유명한 국대

안반대투쟁(의대생이 선봉)은 우리 학생사에 길이 남는 사실로 전해 오듯이 바로 역사의 현상이 거기에 있었다.

당시 클래스메이트였던 權景澈박사는 교학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며 학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부득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필자가 장학생으로 추천, 장학금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군의관 8년 복무후

1만원 받고 옷벗어

1949년 2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만에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는 모두 군에 자원입대하여 7~8년간 군의관으로 복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당초 입대시는 2년만 근무하면 제대시켜 준다면 정부의 약속도 안 지켜져 끝내 7~8년을 꼬박 채우고야 겨우 제대비 1만원을 받고 예편했다.

앨범도 없던 시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앞에 놓고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니 인생의 보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된다.



⑬ 경덕전자

카드 하나로 초일류기업 향한 힘찬 도약

각종 카드 판독기, 카드 발급기, 교통카드, IC카드 공중전화 등 국내 자동 인식 장치중에는 유독 「KDE」 로고가 눈에 많이 띈다.

경덕전자(자동인식장치 전문 종합업체)가 87년 창업 이래 이제까지 내놓은 상품들이다.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尹學範(72년工大卒)동문은 10여년 가까이 삼성전자 반도체부에서 개발과 설계분야를 담당했고 한독컴퓨터 이사를 역임하는 등 이 분야에서 20여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현재 1세대 벤처기업가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힌다.

강동구 둔촌동에 소재한 경덕전자는



尹學範 대표

경경사를 맞았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경덕전자는 요즘 같은 불황에 오히려 연간 50%이상의 매출액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 최고의 영예인 「제1회 벤처기업 대상(동탑산업훈장)」을 수상, 이어 무역협회의 「1천만불 수출탑」도 함께 받는

것까지 해외시장에 자기 브랜드로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 이에 직원들은 생산성 향상 및 불량을 제로에 도전하며 모두가 바쁘게 일손을 놀리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경덕전자는 거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국내 관련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진출, 지난해 중국공장 제품의 상품매출이 총매출의 28%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인감증명서,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등의 기능을 한 장의 카드에 담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할 예정임으로, 경덕전자는 시장만 형성되면 진입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 특히 92년 지하철 보통발매기를 국산화하면서 2000년대 초까지 대규모 발주가 예상돼 매년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의 공급업체로 선정, 교통카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국내 IC카드 관련시장은 올해 2천5백39억원의 대형시장을 형성하게 될 전망으로, 경덕전자는 예상매출액을 4백97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오는 2천년에는 매출 1천억원의 세계 5대 자동인식기 메이커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信)



카드 충전기

첫 벤처기업 대상 받아

3백30여명의 직원중 연구직이 79명이나 되고, 매출의 10%를 개발비에 쓰고 있는 尹동문의 연구개발의 열의는 자신이 연구소를 직접 이끄는데서 잘 나타난다. 尹동문은 매일 아침 둔촌동 본사 대신 문정동 연구소로 출근,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인다.

尹동문의 경영철학도 이와 연관된다. 바로 중소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2000년 세계시장 겨냥

경덕전자는 부산시가 발주한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승요금 지불 카드시스템인 「하나로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됐으며 이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버스카드시스템



둔촌동 본사전경

경제를 살립시다

⑭ (주)솔빛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승부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라는 가치를 내걸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기업 (주)솔빛.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91년 설립된 솔빛은 멀티미디어 기술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유망기업이다. 솔빛은 출범 당시 멀티미디어 전문회사로 간판을 내걸고 국내 최초의 멀티미디어 PC를 개발, 국내외에 기술력을 과시했다. 곧이어 국내 최초의 CD-ROM 타이틀,

한글 데이터 베이스 위주의 CD-ROM 저작도구 등을 개발하면서 멀티미디어 업계에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후 점차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프로그램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솔빛은 인터넷에서도 9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인터넷 웹(Web)서비스와 웹타이틀을 선



文于椿대표

보여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모교의 캠퍼스 정보시스템 WWW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웹사이트 구축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솔빛은 지난 95년 위성교육사업 진출을 계기로 교육정보 종합서비스업체로 사업분야를 확대 개편하면서 직원 2백여명, 자산 2백2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교육업체의 면모를 갖추고 교육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성스쿨 학원에 활용도

솔빛의 이같은 발전을 이룩한 구심점은 바로 文于椿(82년工大卒)사장. 「도전이 직업인 타고난 승부사」라 일컬어지는 文동문은 83년 금성사에 입사, 연구소 발령을 받았지만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얻고 싶어 지방공장 근무를 자청했던 인물이다.

文동문과 2백여명의 직원이 일구어낸 땀의 결실인 솔빛은 현재 중·고생 대상의 위성교육 시스템인 솔빛위성스쿨(Solvit Satellite School)을 운영, 전국 1백여개의 사설학원에 양질의 위성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한 솔빛애프터스쿨(Solvit After School)을 통해 올해 약 2백여개의 학교, 6만여명의 초등학교생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원격교육을 통하면 낙도나 오지의 학생들도 도시학생들과 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회평등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솔빛의 CD-ROM 타이틀은 양질의 콘텐츠와 탄탄한 기획,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국내 CD-ROM 타이틀 수준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듀테인먼트 영어회화 타이틀인 「이것이 미국 영어다」와 영국의 DK사와 제휴한 「솔빛 CD-ROM 학습백과 시리즈」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솔빛은 콘텐츠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교육기관, 교육자를 한데 묶는 종합유통망을 구축,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교육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信)



초등학생 대상 멀티미디어교실



스튜디오 주조정실

지부 소식

멜버른 지부

멜버른지부동창회(회장 金萬石)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개선을 했다.

신임 회장에 柳政子(64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趙璟濟(70년 法大卒)동문, 회계에 백승빈(90년 音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태국 지부

태국지부동창회(회장 金錫鍵)는 최근 방콕소재 Delta Grand Pacific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제6조에 규정한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으며 회장을 비롯해 吳正一(63년 商大卒)감사를 재선임했다.

상해 지부

상해지부동창회(회장 潘安國)는 최근 임원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朴魯彦(70년 獸醫大卒)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李鍾山(75년 藥大卒), 朴始源(81년 工大卒)동문, 총무에 윤재은(90년 人文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휴스턴 지부

휴스턴지부동창회(회장 許泉)는 지난 12월 26일 Houston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연말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卓順德(61년 師大卒)동문을 선출하고 한국악단을 초청,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조지아 지부

조지아지부동창회(회장 盧幸子)는 최근 애틀란타 시내 Marriott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개선을 했다.

신임 회장에 林壽岩(67년 工大卒)부회장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朴昌昌(60년 文理大卒)

동문, 총무에 金容柱(77년 法大卒)동문, 재무에 趙德盛(78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오레곤 지부

오레곤지부동창회(회장 鄭泰勳)는 최근 Double Tree호텔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문들의 주소록 제작과 同會의 Web site를 인터넷에 접속키로 의결했다. 또한 신임 회장에 李鍾天(70년 工大卒)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 겸 총무에 朴昌成(76년 師大卒)동문을 연임시켰다.

샌디에고 지부

샌디에고지부동창회(회장 廉料鎬)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李相姬(73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전임 廉料鎬회장과 李彰鍾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모교 개교 50주년 영상 자료를 준비하여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시애틀 지부

시애틀지부동창회(회장 李大源)는 최근 Batelle Conference Center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柳光鉉(64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로 일해오다 타계한 韓明範(79년 農大卒)동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와이 지부

하와이지부동창회(회장 具官會)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崔鼎來(63년 獸醫大卒)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 1월 29일 신년하례회를 열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變)

단과대학 소식

상과대학

8회 동기회에 「뭉치자賞」 전달



張회장이 조흥은행지부에 「뭉치자賞」을 수여했다.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 30일 대한상의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임

을 겸해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康奉均정보통신부 장관, 李起浩노동부 장관, 崔 洸보 건복지부 장관, 黃珞周 前국회의장, 洪性澈 前통일원 장

법과대학

최근 영전한 동문 축하패 받아



法科大學同窓會(회장 李爽熙)는 지난 1월 20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玄勝鍾건국대 이사장, 琴震鎬국제 무역경영연구원 회장, 安又萬

前법무부 장관, 朴仁珏 前평북지사, 尹世榮서울방송 회장, 金許男국회의원, 朴相千국민회의 원내총무, 모교 宋相現 학장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 새해 인사를 나눴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 陳 稔기아그룹 회장, 金永燮대통령 경제수석, 金文洙국회의원, 裴茂基중앙노동위원장 등 각계 동문 80여명이 참석했다.

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0년만의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 상대인이 술선수범하여 IMF의 한파를 이겨나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康奉均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예결산 심의에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張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원로 동문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동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년 거행되는 「뭉치자賞」과 「뭉치자賞」은 8회 동기회와 조흥은행 지부가 각각 수상했다.

『21세기로 나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당면한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법대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모교와 동창회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교 宋학장은 『올해 사법고시에서 전체 합격생 6백4명중 3백25명이 모교출신이며, 그중 2백23명이 법대출신』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새로 취임한 咸正鎬대한변호사협회장, 鄭在憲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韓大鉉헌법재판관, 金鍾求법무부 장관, 沈宇永총무처 장관, 徐 晟대법관, 金泰政검찰총장, 曹海寧내무부 장관, 鄭海汾통상산업부 장관 등 총 9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楊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국가적인 곤란이 개인 가정의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돕고 화합하여, 이웃을 생각하며 자기가 맡은 일에 더욱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모교 李笑雨학장은 『동문들의 협조로 학술대회를 비롯해 많은 행사가 무사히 치러져 감사하다』고 말하고 『올해는 새로 선출될 학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同會는 매년 「신년하례회」를 통하여 원로 동문을 비롯, 동문 상호간에 새해 인사로서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美)

간호대학

선·후배간 세배와 덕담 나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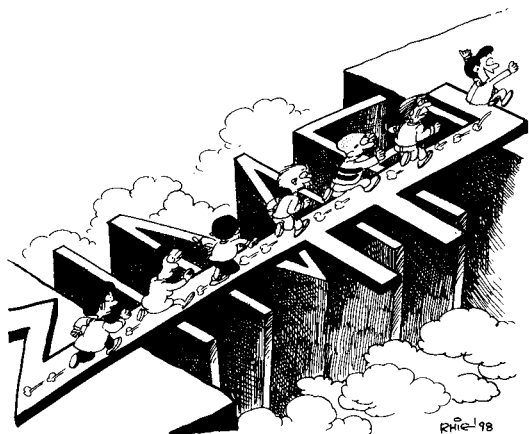
신년교례회에서 선후배간 세배를 나누었다.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1월 5일 모교 간호

대 기숙사 1층 라운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만평

李元馥



“위기의 다리가 되어...”-엘리트의 의무

단과대학 소식

가정대학

재학생에 장학금수여

家政大學同窓會(회장 李義淑)는 지난 1월 20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모교 李恩英학장은 3월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집」을 개관한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올해부터 각과별 총 4명에게 확대 실시키로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소비자학과 구본경양, 아동가족학과 조지은양, 식품영양학과 이영민양, 의류학과 김진영양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최고경영자과정

경제회복 기원모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1월 15일 힐튼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1백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조촐한 분위기에서 상호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는 孫회장의 새해 인사말과 모교 경영대 郭秀一학장의 덕담 등에 이어 새해의 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건배순으로 진행됐다.

최고산업전락과정

IMF극복 세미나

최고산업전락과정동창회(회장 崔在英)는 지난 1월 9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모교 鮮于仲皓총장 및 공대 李長茂학장을 비롯해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의례적인 신년하례회 자리가 아니라 IMF체제하에 우리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을 고민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치러져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을 맡은 尹炳哲하나은행 회장은 「IMF체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체제에 맞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정책과정

신년조찬 강연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朴寬用)는 지난 1월 22일 프라자호텔에서 「신년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른 아침에 열린 이날 강연에서 많은 동문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美)

기과별 소식

정치·외교학과

새 각오 새 모습의 단합 다짐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榮國·姜賢旭)는 지난 1월 1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1백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모교 金弘宇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同會가 올해에는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가며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姜회장은 「더욱 따뜻한 가족애를 가지고 동문 서로가 합심 단합해 값지고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具平會무역협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정치와 외교분야가 특히 잘돼야 하며 동문 모두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동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자원공학과

새로 부임한 교수 인사 나누



좌로부터 白士益, 權肅汶, 韓大林, 洪俊基, 朴佑炳동문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韓大林)는 지난 1월 10일 종근당빌딩 15층 펜타레스토랑에서 동문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韓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동문 모두 굳은 마음으로 단합하여 헤쳐나가자」고 역설했으며 이날 참석한 朴佑柄국회의원은 「배출되는 후배들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낙관적이라 생각되며 同會가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부임한 申昌秀(물리탐사), 趙熙燦(자원재활용), 許殷寧(자원환경경제), 全哲遠(암반공학), 朴亨東(응용지구화학 및 지질공학)교수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서울대 트리비아

Q11. 97년 현재 모교는 각각 몇 개의 단과대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을까요?

A. 16개 단과대학, 1개 대학원, 3개 전문대학원

·단과대학: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간호대, 경영대, 공대, 농생대, 미대, 법대, 사대, 생활대, 수의대, 약대, 음대, 의대, 치대.

·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인류학과

매년 1월·10월 행사 열기로

인류학과동창회(회장 柳志賢)는 지난 1월 2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尹汀華(인터링크 비즈니스 프라자 전문위원)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신입임원 소개와 그동안의 활동 및 98년 활동계획 보고가 있었다.

柳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란 것은 서로 공을 들이고 단합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 참석한 동문 모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同會는 앞으로 매년 1월과 10월에 각각 신년하례식과 Home Coming Day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마로니에회

문리대 64학번 한자리에 모여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1월 20일 무역회관 52층 목련실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辛鉉雄문체부 차관보, 金炳日통계청장, 朴宗喆자민련 중앙위 부의장, 具大烈이화여대 교수, 姜正文대흥기획 전무, 宋錫亨SBS보

도본부장, 朱剛秀현대산업개발 사장, 任敦姬동국대 교수, 車進道 AMERICA항공 한국지사장, 柳熙根 MBC통일문제연구소장, 金泳夏 KIST고분자연구부장, 權武一한나테크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李相億교수가 「IMF시대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교육학과

「교육학과 50년사」 제작 배포



교육학과동창회(회장 李相周)는 지난 1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金宗西교육개혁위원장, 李榮德정신문화연구원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모교 李宗宰교수

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李회장의 인사말과 원로교수의 신년 덕담이 이어졌다.

同會는 매년 1월 2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학과 50년사」와 모교 달력을 배포했다. (信)

모교소식

98학년도 합격자 발표

쌍둥이 5쌍, 뇌성마비 장애인도



모교는 지난 1월 27일 98학년도 입시 합격자 4천5백8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 1만2천84명 지원, 2.63대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입시에서 합격자 가운데 재수생은 1천1백71명으로 25.6%를 차지,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여학생은 1천1백57명(25.3%)으로 지난해에 비해 1.7%포인트 줄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뇌성마비 장애를 이긴 의지의 수험생과 쌍둥이 다섯쌍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9명도 입시의 관문을 통과, 학자금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수능 384.6점을 얻어 철학과에 지원한 레스토랑 접시닦이 출신의 金基星(34세)씨로 알려졌다. 쌍둥이 합격자 중 金容寬·容澤균은 둘 다 법학부에 지원, 나란히 합격했다. 이외에 裴官珍(법학부)·官成(사회복지), 金明新(응용화학부)·明道(재료공학부), 金慈說(기계항공)·先說(재료공학부), 柳壽鉉(식물생산)·福鉉(동물자원)군 등 쌍둥이 4쌍이 합격했다.

또 뇌성마비 장애인인 鄭泰瑄(소비자아동)군과 李守珉(자연과학부)군이 당당히 합격해 주위의 축하를 받았다.

새학기부터 「가상대학」 운영

13~14개 과목 가상수업 실시

모교는 이번 새학기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수업을 하는 가상대학을 운영키로 했다.

가상대학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등 이른바 가상공간을 통해 수업하고 세미나를 열며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학이다.

우선 올해는 재학생과 학점교류를 신청한 다른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의 이

해」, 「교육의 이해」, 「경영전산처리」 등 대단위 강좌 위주의 13~14개 과목을 선정, 가상수업을 실시한 뒤 각종 기술적 제약이나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99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3년 뒤부터는 독립된 형태를 가진 가상대학으로 격상시켜 직장인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대학살롱」중에서—

파리 목숨 부지하려니...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대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시도한다고. 쌀롱자 생각에는 사람들이 1년된 일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듯 하오. 다름이 아니라 그 유명한 어느 회장의 「머슴」이라는 발언에 분노하던 것이 었그제 같다는 말이오. 정말 이리다 노동자 목숨이 「사람 목숨」인지 「파리 목숨」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오.

우수학생 특차모집 추진키로 학사편입 타대학출신도 허용

모교가 99학년도부터 특차모집을 실시하고 모교 졸업생에게만 허용해온 학사편입을 타대학 출신자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교는 상위권 대학 중 유일하게 특차모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우수학생 확보책으로 특차모집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모교는 학사편입이 입시과열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타대학 출신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립대인 모교가 문호를 개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일부 단과대에서도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여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학사편입은 일반편입과는 달리 졸업후 3학년으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제6회 「한국과학상」 수상

자연대 李 樞·吳世正교수

지난 1월 8일 기초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상인 제6회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모교 화학과 李 樞(69년 文理大卒)교수와 물리학과 吳世正(75년 文理大卒)교수가 선정됐다.

과거처가 선정하는 이 상은 지난 87년부터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과학자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한국의 노벨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부상 5천만원이 주어진다.

화학상 수상자인 李교수는 지난 95년 바닷속의 연체동물에서 추출되는 천연물인 탁토멜라인을 세계 최초로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했으며, 물리화학상 수상자인 吳교수는 신소재에 주로 쓰이는 망간, 철, 코발트 등 전이원소 화합물



李 樞 교수



吳世正교수

의 물성을 연구, 지난 87년 「광전자 분광법을 이용한 전이원소 화합물질의 전자구조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美학술회의 주제인물로 선정

의대 일반외과 金鎮福교수



의과대학 金鎮福(58년 醫大卒)교수(사진)가 미국 캘리포니아대 일반외과 학술회의의 토의대상 인물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의학자가 외국 학술회의의 주제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대 일반외과는 3월 5일 「Who is Jin Pok Kim?」을 주제로 金교수의 논문과 수술사례를 분석하고 그의 면역화학수술요법 등을 집중 조명한다는 것이다.

金교수는 71년부터 96년까지

1만7백83회의 위암 수술을 시행, 세계적인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모교 병원

인공심장 첫 이식

모교 병원에서 개발한 전기유압식 인공 보조심장을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모교 병원 흉부외과 安 赫, 金元坤, 盧浚亮교수와 의공학과 閔丙九교수팀은 확장성 심근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이 보조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16일 밝혔다.

압축공기식인 외국산과 달리 세계 처음으로 전기유압식을 채택한 이 보조심장은 인체 심장박동과 가장 유사하게 작동하고 휴대용으로 소형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교수윤리위」 설치

품위문제 자율규제

모교는 국내 대학가운데 처음으로 교수의 논문표절과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규범도 제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교수가 품위문제로 시비를 낳는 행동을 했을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해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를 하거나 이해 당사자간 중재역할을 하고 위반정도가 심하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건의하게 된다.

유전자이식연구소

유전자 쥐로 특허

최근 의과대학 유전자이식연구소(소장 徐廷瑄)가 개발한 유전자이식 생쥐가 국내 최초로 미국의 생명특허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유전자이식 생쥐는 수정란에 유전자를 삽입, 인공적으로 면역결핍증과 당뇨를 일으킨 쥐로 해당 질환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현재 면역결핍증 유발쥐는 마리당 1백달러를 호가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연간 1억달러의 시장규모를 지닌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기획실장에

姜光夏교수



최근 모교 본부 기획실장에 姜光夏(71년 商大卒·冠岳會理事)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새로 취임했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姜교수는 81년 텍사스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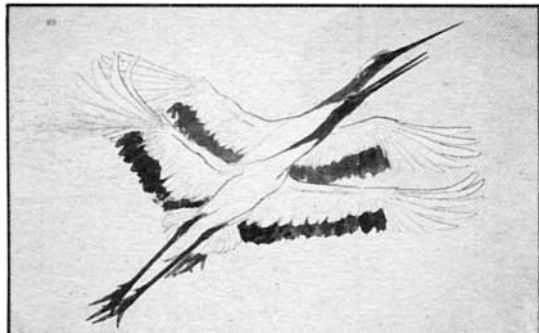
신입·재학생 등록금

작년 수준으로 동결

모교는 98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鮮于仲皓총장은 지난 1월 21일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펼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 고통분담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雙)



존경하는 당신에게

朴賢洵(73년 家政大卒)KBS국제방송국 부주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이 한참인 요즘같은 IMF지원 체제하에서 특히 취업여성들의 불안은 그 강도가 더욱 높다.

인력감축에 있어 영순위는 아이가 둘인 기혼여성, 그 다음은 가족부양의 부담이 없는 미혼여성이고 그 다음은 아이가 하나인 기혼여성이라는 기사를 읽고 아무리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실제로 어느 광고 회사에서는 직원 10명을 줄이면서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 전원(8명)과 누구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는 남성 2명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8명의 여성중에는 그 광고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광고인이 끼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 국난의 시대, 여성이 우선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많은 실직 남성과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주부들도 많을 것이다. 실제,

「KBS 제1라디오 박찬숙의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의 여론광장에서 이 주제로 청취자들의 전화를 받아 보니까 이럴 때에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업 주부들도 적지 않았고, 여성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는 남성 청취자들도 또한 없지 않았다.

인력감축 영순위, 기혼여성

여성의 지위가 어느 때보다도 낮았던 조선조때 아내가 투기를 일삼으면 쫓아낼 수 있도록 제도화 했던 칠거지악은 권력을 가진 왕과 세력가들이 말하자면 바람을 자유롭게 보장받으면서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선조가 또한 한글을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 하여 언문이라고 하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민족혼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같이 하대받던 우리의 말과 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즉 여자들이 지켜낸 문화가 결국은 구국의 근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1월 18일 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과의 TV대화」에서다. 여성단체 대표가 여성들이 능력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감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金당선자는 「여성들이 우선 해고 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노동부장관에게 전화해서 정부가 철저히 각 기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단속하도록 부탁을 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았다.

대통령 당선자가 감옥에 있을 때 당선자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존경하는 당신에게」라고 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내 경우 남편과 2년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두어번 글을 받아 본 적이 있



는데 「당신에게」하고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부부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좀더 다정한 남편이라면 「사랑하는」을 앞에 부칠 정도일까. 앞으로 상당수 여성각료가 등장할 것이라는 당선자의 예고가 있어서가 아니라도 부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관이 한국의 남성들에게 두루 확산되기를 바란다.

미래의 희망은 부부평등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운 때일지라도 「미래는 희망」이어야 하며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우리 민족의 용틀임을 위해서라도 능력 앞에 남자는 여자는 평등해야 할 것이다.

여성 미화도 폄하도 싫다

曹貞勳(90년 人文大卒)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필자는 직업상(문화부에서 영화와 패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화를 많이 본다. 「30대에 접어든 여성」인 내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영화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인상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쪽이다. - 학교다닐 때 별다른 여성의식을 갖지 않았던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걸 뒤집어 보면 우리 학교는 비교적 여성 차별이 없는 곳이었는지.

「변검」, 「에어리언4」

이런 의미에서 최근 내 관심을 끈 작품이 2편 있다.

첫째는 중국영화 「변검」. 여자라는 사실때문에 냉대받고 7번이나 팔려다닌 소녀의 강한 척하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뿔굴 듯한 얼굴이 가슴아프게 다가왔다. 하이라이트는 파스하게 대하 주다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달

아버린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 소녀의 용기있는 행동. 이것은 「여자에게는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은 중요한 순간이다. 천년을 이어내려온 전통도 진실한 마음 앞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감동을 줬다. 그러나 동시에 남성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여성이 얻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설정이 우리 현실에 대한 암시같아 마음이 아렸다.

두번째는 「에어리언 4」. 할리우드 영화를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주인공 시고니 위버의 아마조네스적인 분위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강박한 느낌의 마른 몸매에 붙은 솜은 근육, 남자 땀은 너끈히 때려눕히는 힘은 「아!」하는 감탄을 자아냈다. 이것은 나쁜 아니라 다른 여기자들도 동의한 일. 하지만 함께 사회장에 있던 남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멋있다」는 사람은 한둘, 「무슨 여

자가 그래」서부터 「자꾸 저런 여자를 내세우니까 여자들이 이상해지지」하는 장난기어린 촌평까지 부정적인 얘기 일색이었다. 너무 강해보이는 여성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

1월말 개봉된 한 한국영화는 간결한 묘사와 아름다운 화면이 좋았지만 「순수함」이란 포장속에 백치처럼 묘사된 여주인공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멜러 영화의 한계인가, 한국영화의 문제인가」를 잠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성=잉여인력」?

사실 문제는 영화만이 아니다. 소비심리를 부채질하는 「미시 신드롬」,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오해하게 하는 동시에 커가는 여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동시키는 「멋진 커리어우먼의 환상」 등 각계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여성

에 대한 미화는 부정적 묘사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게다가 IMF와 이후에는 「여성=잉여인력」이라는 위험한 시각마저 등장하다니...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화도 폄하도 되지않고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우수한 아내나 딸을 둔 남성일수록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이라는 말(주변의 여자 선배들이 얘기하고 나도 동감하는)을 받아들이면 여성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저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 사족을 달니다. - 제가 매일 영화를 보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호전적 여권주의자도 아닙니다. 온갖 중압감에 눌리며 생존하려 애쓰는 남성들을 곁에서 보거든요. 단지 남성의 역할과 몫이 인정받듯 여성의 그것도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지요.

흙건축가 鄭奇溶동문



흙담집 추억을 현실로 되살려



붉은 토담 위로 감나무가 있고 마루 옆 흙벽에는 메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며, 까맣게 탄 구들장의 아랫목에 앉아서 군밤을 구워먹는 정경은 이젠 그림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억을 현실로 되살리려는 사람. 기용건축 대표 鄭奇溶(68년 美大卒)동문은 「흙박사」로 통한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인 60년대 초에 동송동 거리와 캠퍼스에 는 탱크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미술학도였던 鄭동문은 美란 도대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했다.

모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결국 鄭동문은 이러한 화두를 풀기 위해 전공을 바꾸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새롭게 선택한 것은 파리 제6건축학교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따는 13년이란 세월 그것이었다.

유학 당시 하산의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를 읽고 처음 흙건축에 가슴 뛰던 그때를 잊지 않고 귀국 후, 본격적인 흙공부에 몰입했다. 85년 충남 예산군의 장용순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집에 기거하며, 기술을 익히고 흙담집 건축물을 찾아 다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란 미명아래 농촌의 근대화를 이룬답시고 우리의 전통가옥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인류 역

사상 자신의 전통문화를 그렇게 단시간에 해체해버린 경우는 드물 겁니다」라며 鄭동문은 소실돼버린 많은 흙건축 기술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통 흙건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나무를 심으로 삼고 짚을 섞어 넣은 흙덩이를 바르는 심벽, 둘째, 담틀에 다진 흙으로 만드는 담집, 셋째,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는 방법.

최근 건설된 파주 연산다리 주택은 10여년의 실험 끝에 탄생된 최초의 흙을 주제로 한 담집이다. 다만 흙건축이 갖고 있는 모서리의 약함을 방지하고, 창틀을 쉽게 고정하기 위하여 목재 가구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흙집의 장점은 벽체가 숨을 쉬며 습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축열판이 되어 기온이 낮아진 밤에 실내로 방열하여 따뜻해지는 한편 언젠가는 「집」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깨끗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체가 숨을 쉬며

습도를 조절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건축이 그자신의 죽음까지도 미리 고려해 놓는 것은 당연해 보이면서도 우리들이 늘 잊고 있는 부분이라며 언젠가는 서울시 전체가 콘크리트로 뒤덮일 것이라고 鄭동문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鄭동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흙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은 직접 흙건축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유학시절에 보았던 중동지역의 8층 건물을 떠올리며 이제 흙이 현대적 삶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우를 잠재우고자 노력중이다.(美)

모교병원 金長彦수간호사

여성에 도전한 남자 나이팅게일



禁男의 영역을 허문 서울대병원 최초의 남자 나이팅게일 金長彦(84년 看護大卒)동문.

78년 모교의 교육계열에 응시 후, 고배를 마셔야 했던 金동문은 재도전을 준비하던 중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고 한다.

항상 같은 삶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그만의 끼가 발동했던 것이다.

결심을 굳히고 간호계통으로 궤도를 수정함에 있어 가족들의 만류는 매우 심했다고 金동문은 회상한다.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힘이 들었고 형인 金張容(79년 工大卒)동문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모교 간호학과는 77년부터 남학생에게도 개방되어 1명이 입학했지만 중도에서 포기, 金동문이 입학할 당시에는 5명이 함께 입학했으나 3명은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고 金동문을 포함 두명만이 졸업을 했다.

모교병원에 남자간호사로는 최초로 입사한 金동문은 현재 모교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중 간호사의 직업을 가진 유일한 동문이다. 모교 재학시절

金동문은 그룹사운드(D.D.R)도 결성,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비책으로 음악을 택했다.

결심이 확고부동했던 金동문도 간호계통에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간호학과와 대부분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도중 교수가 착각을 하여 金동문에게 「남자가 왜 여기 있느냐 수업해야 하니까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으며, 실습시절 산부인과를 돌면서 출산한 산모들의 몽우리 진 가슴을 마사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난처해하는 모습에 金동문 자신도 조금은 위축이 됐다.

또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예전엔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도 심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金동문은 「지금의 사회적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에 매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자기 삶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꾸며 나가야 하

“실습시절 산모의

가슴 마사지에

위축되기도”

며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와 자신이 선택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생론을 피력했다.

金동문은 93년 수간호사 시험에 합격, 수술실의 물품과 교육담당 수간호사를 거쳐 현재는 기계담당 수간호사로 재직중이며 86년 같은 병원내 동료인 裴慶子씨와 결혼,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부인은 현재 보험과 심사간호사로 근무중이다.

〈信〉

문단

新刊

■ 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건강하다
—姜成宗 著

미국 바 이오다인(Biodyne)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姜成宗(59년 藥大卒) 동문이 요즘 건강상식의 탈을 쓴 무분별한 주장과 편견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음식 지침과 건강법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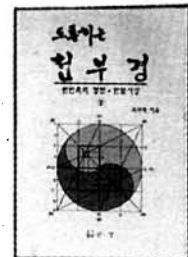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이 필요하며, 오히려 밥을 비롯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은 탄수화물이며 살을 빼려면 지방을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김영사刊·값8,500원)

■ 천년의 지혜가 담긴
109가지 이야기
—金彪裕 著

호주 시드니 New South Wales 대학교 한국사무소장으로 있는 金彪裕(68년 文理大卒) 동문이 동서양 공통의 속담과 격언을 이야기한 이색 도서를 펴냈다.

세계 교양인들의 입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109가지 속담·격언을 테마로 하여 삶의 지혜와 용기, 방편 등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격변하는 현실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판단력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원刊·값6,500원)

■ 도통하는 천부경
—崔義睦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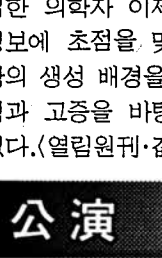
건국대 상경대학 崔義睦(68년 經大院卒) 교수가 「天符經」을 해설, 상·하 두권의 책을 펴냈다. 81자로 된 짧은 경전에 수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체계를 결부시켜 설명했다.

천부경은 신라시대 崔致遠이 사슴 발자국 모양이 새겨진 비석을 통해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경전으로 대종교 등 여러 민족종교가 중심 경전으로 삼고 있다. 崔동문은 천부경 속에 우주생성의 원리로부터 자연의 운행, 생물의 진화, 인간의 윤리가 모두 담겨있다고 말한다. (도서출판 신성刊·값7,000원)

■ 태양인
—鄭昭盛 著

중견작가 鄭昭盛(69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 동문이 매일 경제신문에 연재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태양인」을 2권으로 나눠 출간했다.

동인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박영준문학상, 율탄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鄭동문은 조선시대 사상 의학을 정립한 의학자 이제마의 인간적 행보에 초점을 맞추어 사상의학의 생성 배경을 소설적 상상력과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해냈다. (열림원刊·값7,000원)

■ 李恩榮피아노독주회
—2월 26일 예술의 전당

배화여전, 방송통신대학 강사로 활동해온 李恩榮(86년 音大卒) 동문이 피아노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스카를라티, 베토벤, 바르토크, 슈만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 黃聖燁피아노독주회
—2월 28일 예술의 전당

호서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黃聖燁(69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모차르트, 힌데미트, 무소르그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 국립창극단 「춘향전」
—2월 14일~26일

국립극장 대극장

민족극운동협의회 의장인 林賑澤(75년 文理大卒) 동문이 연출을 맡고 극단 아리랑 대표 金明坤(76년 師大卒) 동문이 대본을 쓴 완판장막창극 「춘향전」이 첫 선을 보인다.

展示

■ 李珉柱개인전

—2월 13일~21일

이콘갤러리

현재 한남대, 경희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동양화가 李珉柱(80년 美大卒) 동문이 압구정동 이콘갤러리에서 11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정리=安興燮기자)

1월호를 읽고

비동문도 관심갖는

내용 수록했으면...



우리 주변에는 신문, 잡지, 광고물 등 많은 인쇄 매체들이 넘치고 있다. 동창회보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매체들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서울대 동창회보」는 동창회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마운 신문이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보수적이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든다. 동창회보를 만든 제작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으니 보내주고, 회원들은 그저 보내주는 것이니 받아보는 신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서울대 출신이나 재미나 겠지」하는 외부평이 나온다면 곤란하다. 동창회 소식은 물론 유익한 내용에 재미까지 가미되면 좋겠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잘 읽혀지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徐廷珍(65년 藥大卒) 수성약품 대표

국가위해 헌신하는

동창회 모습 보여주자

IMF 시대에 처해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각 지역사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국민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동창회에서든 경제 난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거국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서울대 출신은 사회 각층에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남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 전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창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서울대 출신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李崇源(77년 師大卒) 서울여대 교수



동문기고

정신문화의 복원이 시급하다

金容振(57년 音大卒)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지난 한 해는 대선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행사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나는 그중에서 「문화유산의 해」가 가장 값진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문화에 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아름답고 우리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을 대하면서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함에 새삼 고개를 숙였다. 또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문화의 위대성에 감동을 준 참으로 뜻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문화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적인 바탕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

요도 없이 그 어느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21세기를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문화의 세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진 각국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다가오는 세기의 문화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문화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한 사업이 아니다. 지난 20세기 과학문명에 밀려 황폐화된 정신문화의 복원이 더욱 중요하다.

문화의 세기 준비해야

무인년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줄 IMF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쳐두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현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국 후 반세기 동안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치가들의 집단적인 이합집산으로 얼룩지고 황폐화된 정치문화, 또 『시류에 따라야 한다』는 모 재벌 총수의 말처럼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야합한 기업가들의 실종된 기업문화, 그리고 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 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해이한 시민정신문화의 타락 등이 합쳐진 즉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초한 총체적 소산이지 어느 정권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50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이 역사적인 무인년에 이제 우리는 내탓 네탓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건전한 시민정신 확립돼야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정권이나 새 정권이나 하나같이 문화에 대한 비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한낱 음식의 양념격으로만 취급되어 온 실종된 문화본야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은 경제의 회생에 못지않은 문제이다. 실종된 정신문화의 복원과 더불어 건전한 시민정신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비록 이번 IMF 파동을 무사히 넘긴다해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동창회 운영과 모교지원 활동에 밑거름이 됩니다.

회보를 받아보시는 국내외 동문중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理事:97년 12월 5일~98년 1월 6일·一般:97년 12월 3일~98년 1월 5일〉

회 장 단

- ▲부회장 李聖秀= 50만원
- ▲부회장 金許男= 50만원
- ▲부회장 裴載凝= 50만원
- ▲부회장 宋斗瀾= 1백만원
- ▲부회장 徐廷和= 50만원
- ▲부회장 閔丙峻= 1백만원
- ▲부회장 李俊鎔= 1백만원
- ▲부회장 許鎭奎= 1백만원
- ▲부회장 崔秉烈= 50만원

관 악 회

- ▲이 사 李乃均= 30만원
- ▲이 사 朱鎭軒= 30만원

상 임 이 사

- ▲李信子 미대동창회장= 20만원
- ▲李爽熙 법대동창회장= 20만원
- ▲孔大植 경대원동창회장= 20만원
- ▲李喆玉 前보대원동창회장= 20만원
- ▲姜敏求 행대원동창회장= 20만원
- ▲朴重培 환대원동창회장= 20만원
- ▲朴寬用 국가정책과정동창회장= 20만원

이 사

◇家政大學

- ▲이인자⑨전국대교수
- ▲이재연⑭숙명여대 교수
- ▲정영선⑬다문화연구소장
- ▲최규련⑭수원대교수

◇看護大學

- ▲이은숙⑮시립보라매병원

◇工科大學

- ▲권기태⑯한라그룹 부회장
- ▲김도심⑯신아화학기술고문
- ▲김상희⑭태영석회 대표
- ▲김선동⑯쌍용정유 대표
- ▲김성곤⑯동아대 교수
- ▲김은영⑯과학기술자문회의
- ▲김재명⑯SK건설 상무
- ▲김재환⑯코오롱 전무

- ▲김정우⑯우미자원기술대표
- ▲김중렬⑯자원원 탐사개발
- ▲김창현⑯신화건축 대표
- ▲김태섭⑯
- ▲김관수⑯삼양화성 대표
- ▲박경섭⑯일국기연사
- ▲박용승⑯수공감리공단대표
- ▲박원준⑯테크앤드ENG대표
- ▲박재면⑯현대ENG상임고문
- ▲박창호⑯서울대 교수
- ▲설원길⑯원영기업 대표
- ▲손인현⑯세경건설 부사장
- ▲신용철⑯前동남보건전문학장
- ▲신재중⑯前서울산업대교수
- ▲심인보⑯POS-A.C. 사장
- ▲오창석⑯한국TPM컨설팅
- ▲오천택⑯유코무역 대표
- ▲우지형⑯단국대 명예교수
- ▲유관희⑯태광지질 부사장
- ▲윤동실⑯유신설계공단
- ▲이계호⑯前광양제철 고문
- ▲이근호⑯대제통상 상무
- ▲이기성⑯前석탄산업사업단
- ▲이기준⑯서울대 교수
- ▲이정무⑯대우 상용차 이사
- ▲이정일⑯현대미포조선 대표
- ▲이철수⑯고려대 교수
- ▲이현태⑯건진코리아 이사
- ▲장명길⑯일진산업 전무
- ▲장희익⑯LG그룹 상무
- ▲전재풍⑯고려원자력본부장
- ▲조래승⑯아시아자동차
- ▲조정주⑯LG정보통신부사장
- ▲조정호⑯(주)코오롱 전무
- ▲지동범⑯한국제지 부회장
- ▲황인호⑯한기종합건축대표

◇農科大學

- ▲구자웅⑯전북대 교수
- ▲박용욱⑯前두산기술원위원
- ▲유순호⑯서울대 교수
- ▲유태종⑯건양대 교수
- ▲임영준⑯상지대 교수
- ▲장석호⑯서울시 도로국장
- ▲정일영⑯국회의원
- ▲황경구⑯진광산업 대표

◇文理科大學

- ▲강일규⑯한국합부금융회장
- ▲강지원⑯청소년보호위원장
- ▲김경재⑯국회의원
- ▲김성배⑯KBS문화사업단
- ▲김양일⑯인간능력개발원장
- ▲김용술⑯
- ▲김용일⑯카톨릭대학원장

- ▲김중협⑯前동덕여대 총장
- ▲김찬중⑯한샘루핀 전무
- ▲김대길⑯서울대 명예교수
- ▲나종일⑯서울대 명예교수
- ▲남상진⑯조세금융원 회장
- ▲노명호⑯서울대 교수
- ▲문무홍⑯통일원 사무국장
- ▲박경석⑯前국회의원
- ▲박기덕⑯세종대 연구위원
- ▲박범진⑯국회의원
- ▲박세직⑯국회의원
- ▲박윤경⑯풍국화학 대표
- ▲소광희⑯서울대 교수
- ▲손형진⑯前중앙기상대장
- ▲송병섭⑯엘진기계 전무
- ▲안택수⑯국회의원
- ▲여정동⑯前서울대 교수
- ▲유광일⑯한양대 교수
- ▲윤광래⑯한국데이터산업
- ▲이갑주⑯인하병원 부원장
- ▲이상준⑯태남산업 대표
- ▲이상진⑯경남기업 회장
- ▲이수용⑯연산건설 대표
- ▲이용남⑯성서신학교 교수
- ▲이정수⑯통일연수원 교수
- ▲이철배⑯LG클럽 상무
- ▲정창기⑯교통관광TV본부
- ▲최각규⑯강원도지사
- ▲최서영⑯노인종합유선방송
- ▲최성재⑯서울대 교수
- ▲한동목⑯화일무역
- ▲한필순⑯원자력연구소고문
- ▲한화갑⑯국회의원
- ▲홍영대⑯동우실크 대표

◇美術大學

- ▲민경갑⑯유산화실
- ▲임훈순⑯前이화여대 교수
- ▲최의순⑯서울대 교수

◇法科大學

- ▲강금실⑯변호사
- ▲강대석⑯수원지검강력부장
- ▲강익엽⑯변호사
- ▲고광석⑯한일은행 차장
- ▲고명운⑯前국회 예산실장
- ▲고종진⑯동양맥주 부회장
- ▲권태준⑯서울대 교수
- ▲김 덕⑯국회의원
- ▲김관재⑯광주지법 판사
- ▲김규철⑯산업기술정보원장
- ▲김도선⑯前철인냉동 사장
- ▲김동원⑯야쿠르트유럽부장
- ▲김병중⑯前제일생명 국장
- ▲김용섭⑯우신개발금융상무

- ▲김우현⑯법무사협회 고문
- ▲김종복⑯산업은행 부부장
- ▲김진무⑯前산요반도체고문
- ▲김진석⑯변호사
- ▲김창희⑯창경실업 대표
- ▲김태호⑯국회의원
- ▲노승두⑯변호사
- ▲노종상⑯변호사
- ▲문희상⑯前국회의원
- ▲민수광⑯현대건설 이사
- ▲박영호⑯前한진 감사
- ▲박인수⑯변호사
- ▲배영길⑯지방자치연구원
- ▲백남치⑯국회의원
- ▲서성식⑯의환銀經남본부장
- ▲신화중⑯제일통상 전무
- ▲안경상⑯변호사
- ▲양영모⑯SK 전무
- ▲엄낙용⑯관세청장
- ▲오성계⑯변호사
- ▲오유방⑯변호사
- ▲오재덕⑯한화그룹 고문
- ▲오태환⑯(주)개담 회장
- ▲오혁진⑯변호사
- ▲원세훈⑯서울시보건사회국
- ▲유덕택⑯인천일보 부사장
- ▲유재복⑯변호사
- ▲유창종⑯광주지검순천지청
- ▲윤성태⑯의료보험연합회장
- ▲윤용호⑯변호사
- ▲이강남⑯부안고법 판사
- ▲이계천⑯
- ▲이논규⑯법무사
- ▲이슬진⑯변호사
- ▲이승종⑯보증보험 한서점
- ▲이정환⑯한미銀 사당지점
- ▲이찬욱⑯변호사
- ▲이현승⑯서울가정법원판사
- ▲임무룡⑯강원도 내무국장
- ▲임성수⑯수출입銀 차장
- ▲장동완⑯변호사
- ▲장세두⑯변호사
- ▲장지환⑯
- ▲전상석⑯변호사
- ▲전희수⑯동양화재보험이사
- ▲정기영⑯우진종합상사사장
- ▲정지훈⑯맥림주택환경회장
- ▲조동진⑯롯데할부금융감사
- ▲조희래⑯변호사
- ▲천정배⑯국회의원
- ▲최공진⑯한국창조성본부
- ▲최규영⑯해운조합 이사장
- ▲최병학⑯서울고법부장판사
- ▲한청수⑯前충남지사
- ▲허남훈⑯국회의원

- ▲홍순표⑯경기통상협력실장
- ▲황병인⑯前공무원연금공단
- ▲황성재⑯인천지법부장판사

◇師範大學

- ▲강대은⑯삼선교약국
- ▲강순구⑯매산여고 교장
- ▲강영삼⑯국민대 사대학장
- ▲권태원⑯도산학술연구원
- ▲김광수⑯둔내중고교장
- ▲김난수⑯광주대 총장
- ▲김덕순⑯前명일여고 교장
- ▲문병학⑯보험감독원부원장
- ▲문윤길⑯변호사
- ▲배종무⑯국회의원
- ▲육정석⑯단국대 교수
- ▲이상연⑯前중원중 교장
- ▲이유택⑯동대문구부구청장
- ▲이인규⑯진성여중 교장
- ▲장기욱⑯신성대 학장
- ▲전성택⑯춘천교대명예교수
- ▲조 훈⑯前전주남중 교장
- ▲조건상⑯前충북대명예교수
- ▲조용복⑯서울사대부중교장
- ▲허석구⑯고려냉장 회장
- ▲홍정식⑯라인토타디자인

◇商科大學

- ▲강동석⑯국민리쓰 부사장
- ▲권영인⑯바이오믹스 대표
- ▲김태원⑯前신용보증기금
- ▲김도승⑯한림통상 대표
- ▲김제진⑯前신탁은행
- ▲남윤우⑯아산전자 사장
- ▲박기종⑯총리실 부이사관
- ▲박원배⑯한화그룹 비서실
- ▲변형운⑯새사회현대 이사장
- ▲성홍제⑯태화항공해운 사장
- ▲신기범⑯前미즈비시은행
- ▲오규삼⑯유미개발 대표
- ▲오덕균⑯EXPO기념재단
- ▲유대진⑯前옥광상사 대표
- ▲이건재⑯오정약품 대표
- ▲이수인⑯국회의원
- ▲이원교⑯한국교회사학이사
- ▲이창수⑯관동대 교수
- ▲전영수⑯前주택은행장
- ▲조 원⑯前한국신용평가
- ▲최진재⑯데이비스제약대표
- ▲최홍락⑯양재경영연구소장
- ▲탁갑균⑯동성교역 상무

◇獸醫科大學

- ▲권순경⑯서울시보건환경연구
- ▲김우호⑯파천연구소 고문

▲임영일④합동동물병원장

◇藥學大學

▲김영택⑤한국복지약국
▲김호원⑥호원약국
▲남승국⑦건일약품 공장장
▲문창규⑧서울대 교수
▲유재은⑨신유약국
▲윤홍중⑩금강약국
▲윤효선⑪삼선교약국
▲이유재⑫한일약국
▲이정준⑬KAIST유전공학박사
▲임현정⑭삼덕약국
▲주춘대⑮반도제약 전무
▲한병련⑯광성약국

◇音樂大學

▲김 석⑥경희대 교수

◇醫科大學

▲강영민⑥강영민내과의원장
▲강태웅⑦前원자력병원장
▲김 전⑧서울대 교수
▲김상우⑨인제대 교수
▲김수신⑩성형외과의원장
▲김영민⑪서울대 교수
▲김영태⑫서울중앙병원과장
▲김예희⑬백병원 내과
▲김재영⑭순천의원장
▲김종희⑮희생의원장
▲김찬욱⑯김찬욱외과의원장
▲민영욱⑰진주고려병원과장
▲박명희⑱서울대 병원
▲박영배⑲서울대 병원
▲박철규⑳서울대 병원
▲박현수㉑이비인후과의원장
▲송만준㉒송만준의원장
▲송정삼㉓경희의료원
▲안영민㉔강남병원소아과장
▲양두병㉕재림성형외과의원
▲염광민㉖서울대 교수
▲이면상㉗제일방사선과원장
▲이명덕㉘강남성모병원교수
▲이상문㉙소아과의원장
▲이상복㉚서울대 교수
▲이상일㉛삼성의료원소아과
▲이성규㉜보훈병원일반외과
▲이용희㉝제주의료원장
▲이주탁㉞청구성심병원과장
▲장선오㉟서울대 교수
▲장우현㊱한림의대학장
▲정을삼㊲전주세수병원과장
▲조영희㊳조신경외과의원장
▲주정화㊴고대안안병원
▲함의근㊵서울대 교수
▲황규엽㊶정형외과의원장

◇齒科大學

▲권오양⑩권오양치과의원장
▲김세동⑪김세동치과의원장
▲김세진⑫김세진치과의원장
▲김현규⑬남문치과의원장
▲노태래⑭노태래치과의원장
▲박종만⑮박치과의원장
▲손대식⑯손대식치과의원장
▲손오영⑰손오영치과의원장
▲신경호⑱신경호치과의원장
▲유재석⑲유재석치과의원장
▲윤창근⑳시립보라매병원
▲이건섭㉑이치과의원장
▲이미대㉒현대치과의원장
▲이신형㉓이치과의원장
▲이영대㉔삼선치과의원장

▲이운영⑥이운영치과의원장
▲임철중⑦임철중치과의원장
▲전훈식⑧전훈식치과의원장
▲최남훈⑨최치과의원장
▲한형진⑩한형진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박기범⑥정금당 대표
▲박무익⑦한국갤럽조사팀
▲임영록⑧한국銀목포지점

◇教育大學院

▲송향섭⑥철도專大교무과장

◇保健大學院

▲이시영⑦마사회 마필보건

◇司法大學院

▲김기현③변호사
▲정광희⑤변호사

◇新聞大學院

▲임채욱⑦한국문화정책개발

◇行政大學院

▲김영화⑦특허법률사무소장
▲박준익⑧前롯데칠성음료
▲이동훈⑨산업연구원 고문
▲조일호⑩농림부 차관

◇環境大學院

▲강길부④대통령 건설비서관

◇최고경영자과정

▲허대범⑧국회의원

일 반

◇人文大學

▲강석철⑦ ▲강인식④
▲강창우④ ▲곽재성⑧
▲권태인⑦ ▲김 철⑩
▲김명미⑦ ▲김낙송⑨
▲김영성⑩ ▲김우형⑥
▲김인배⑦ ▲박동춘⑦
▲박태영⑦ ▲박흥구⑦
▲박희병⑦ ▲송학준⑤
▲신철수② ▲안미정⑧
▲안범진⑩ ▲안상욱⑥
▲양태중③ ▲오정택⑥
▲육영채⑧ ▲유종목⑦
▲이기현④ ▲이동환⑧
▲이명훈③ ▲이상희⑧
▲이종수⑩ ▲이주형④
▲임남희② ▲임영진②
▲임인주⑥ ▲전장환⑦
▲조능희⑦ ▲진용수③
▲최승환⑩ ▲최영욱⑦
▲홍문수⑩ ▲홍석경⑤
▲황호선⑩

◇社會科學大學

▲강재상⑧ ▲김기영⑦
▲김용성⑧ ▲김준영⑧
▲김형렬② ▲김형찬⑤
▲박 철⑦ ▲박영석⑨
▲박용규⑥ ▲송수한⑥
▲신철식⑦ ▲오재학⑦
▲유태선⑧ ▲이광오⑦
▲이동한⑧ ▲이동호⑤
▲이민섭⑧ ▲이재열④
▲이호동⑧ ▲임성만⑤
▲정선모⑦ ▲조태형⑤

▲조현석⑦

▲최영환⑧

◇自然科學大學

▲강위창③ ▲권진혁⑦
▲김석진④ ▲김승우⑧
▲김승환⑧ ▲김우식⑧
▲김태진⑥ ▲손병기⑦
▲손병화⑧ ▲신영길②
▲안계수⑦ ▲윤기정④
▲윤상의⑤ ▲이기섭⑤
▲이동근③ ▲이명균⑧
▲이재범⑦ ▲이호성⑧
▲임경순④ ▲임규호⑦
▲임진영⑦ ▲전동철⑧
▲정동근⑧ ▲조승제⑨
▲조원덕⑦ ▲최성화⑧
▲허진호③ ▲황치욱⑧

◇家政大學

▲김명옥⑦ ▲김미정⑧
▲김순여⑤ ▲김윤숙⑧
▲김을희⑦ ▲남정은⑦
▲박인순⑧ ▲서유미⑧
▲심수연⑤ ▲엄윤경②
▲윤은영⑤ ▲윤정희④
▲이승림⑧ ▲이창배⑥
▲이창숙⑧ ▲이화숙⑦
▲정수혜③ ▲조유현⑧
▲조진희④ ▲최민자⑦
▲최민진⑧ ▲표은경⑦
▲한순옥⑥

◇看護大學

▲구미옥⑦ ▲김경수⑦
▲김영숙⑦ ▲박인숙⑧
▲신순애⑦ ▲유문자⑧
▲이영현⑦ ▲조인애⑦
▲홍미나②

◇經營大學

▲권영수⑦ ▲김병재⑥
▲김수미⑧ ▲김영백⑥
▲김왕용② ▲김일건⑤
▲김충훈⑧ ▲박대진⑦
▲박재균⑨ ▲배재학⑦
▲배준호⑤ ▲서학수⑧
▲송석진⑦ ▲신동민⑧
▲신동일② ▲안창완⑥
▲양태한⑤ ▲유화석⑦
▲윤기중⑤ ▲이규영④
▲이재형⑤ ▲제준환⑦
▲조도근⑦ ▲최원일⑥

◇工科大學

▲강상규⑦ ▲강영국③
▲강영순⑥ ▲강윤결⑦
▲강재수⑩ ▲강태운⑦
▲강학순⑥ ▲고병렬④
▲고승구⑧ ▲고현성⑧
▲곽수태② ▲곽태현⑦
▲구본준② ▲권영민④
▲권영일⑧ ▲권오석④
▲권태식⑥ ▲김 선⑦
▲김 윤⑦ ▲김 한⑦
▲김경래⑦ ▲김경범⑤
▲김경수⑦ ▲김경웅⑦
▲김광남⑤ ▲김광배⑤
▲김광태⑦ ▲김균섭⑦
▲김기홍③ ▲김남호⑧
▲김대규⑤ ▲김대근③
▲김대영⑦ ▲김도환⑧
▲김동규④ ▲김동욱⑧

▲김득수⑦

▲김명호⑨

▲김미영⑥

▲김석수⑦

▲김성만⑥

▲김성철⑦

▲김영규④

▲김영수⑤

▲김영화③

▲김용창⑥

▲김응섭⑥

▲김재민⑧

▲김재욱⑧

▲김재환⑤

▲김정선⑦

▲김정원⑦

▲김종태⑧

▲김진영⑨

▲김창규④

▲김태훈⑥

▲김한덕⑤

▲김현진⑤

▲김환규③

▲남궁석⑤

▲노재선⑤

▲류기수②

▲류인재⑧

▲민병선⑤

▲박 순⑦

▲박광호⑦

▲박기원⑤

▲박동환⑦

▲박명하⑥

▲박병국②

▲박상구⑤

▲박상명⑧

▲박상학⑥

▲박순조③

▲박영복⑤

▲박영호⑦

▲박원훈④

▲박윤원⑧

▲박종규⑥

▲박종일⑤

▲방수일⑥

▲배동환⑦

▲백용현⑤

▲백창욱③

▲변재국⑤

▲변현우③

▲서용성⑤

▲석영수⑦

▲손 훈⑤

▲손석광⑦

▲송만립⑦

▲송완근⑤

▲신경호⑥

▲신원중⑦

▲신철영⑦

▲신형준⑥

▲양성준⑦

▲양해안⑦

▲염규섭⑤

▲여운관⑦

▲오수경⑧

▲오재건⑤

▲우영하⑦

▲원제혁④

▲유명식②

▲유제춘④

▲윤승중⑥

▲윤우현⑦

▲윤중성③

▲김명섭⑧

▲김문현⑥

▲김봉일④

▲김선복⑥

▲김성찬⑥

▲김수남⑦

▲김영래⑦

▲김영중⑥

▲김영훈⑤

▲김용태⑦

▲김인영⑦

▲김재신③

▲김재형⑤

▲김재환⑤

▲김정웅④

▲김종철⑦

▲김준형⑦

▲김진원⑦

▲김창석⑥

▲김택중⑥

▲김한중⑦

▲김홍연④

▲김희범⑦

▲남창희⑥

▲도동섭⑤

▲류영석⑨

▲문석기⑤

▲민상열③

▲박 철⑦

▲박기범⑧

▲박동식⑦

▲박만호⑦

▲박민수②

▲박병철⑥

▲박상률⑦

▲박상표⑤

▲박석수③

▲박승균⑦

▲박영탁⑦

▲박영희④

▲박유준⑤

▲박의동⑦

▲박종균⑦

▲박지훈⑤

▲배광준⑤

▲배시화⑦

▲백종영⑥

▲변남석⑥

▲변진규⑤

▲서갑수⑥

▲서춘덕②

▲성규동⑧

▲손명환②

▲손승태⑦

▲송영화⑦

▲신경식⑤

▲신상호⑧

▲신창훈⑩

▲신형순②

▲신흥범⑦

▲양승택⑥

▲어 준⑤

▲여왕모⑧

▲염희택④

▲오웅석④

▲오창석⑦

▲우정명⑨

▲위재건⑦

▲유영창⑥

▲유태성④

▲윤우석⑦

▲윤재건⑧

▲윤태식④

▲윤필중⑧

▲윤홍갑②

▲이경운⑥

▲이광석⑤

▲이광욱⑥

▲이규봉⑦

▲이근용②

▲이남규⑥

▲이대우⑦

▲이덕영⑧

▲이동준③

▲이명렬⑦

▲이병건⑦

▲이봉오②

▲이삼형④

▲이상춘⑦

▲이서형⑥

▲이성곤⑨

▲이용선⑤

▲이우혁⑦

▲이의영③

▲이재창⑤

▲이정명④

▲이종국⑨

▲이종근⑦

▲이종희⑦

▲이준성②

▲이창덕⑤

▲이창조⑤

▲이호창⑦

▲이효백⑦

▲이희문⑤

▲임기철⑦

▲임복규⑤

▲임의성⑤

▲장 덕⑦

▲장덕환⑤

▲장석진③

▲장영수④

▲전범기⑤

▲정기주⑨

▲정봉주⑥

▲정상열⑧

▲정순벽④

▲정연희⑤

▲정원조⑦

▲정인용⑤

▲정주호⑤

▲정철진⑥

▲정태규⑥

▲정화구④

▲조남철⑥

▲조성렬⑥

▲조창한⑤

▲좌민수⑦

▲주명로⑦

▲진종원⑦

▲천갑정②

▲최경진⑦

▲최석주⑤

▲최영석⑧

▲최인규⑧

▲최정호②

▲최호병④

▲편종근⑦

▲한두현③

▲한순윤②

▲한태희⑤

▲허준호⑨

▲홍사영③

▲홍영기⑦

▲황보한⑥

▲홍용희⑧

▲윤호기⑦

▲이 해⑤

▲이광배⑦

▲이광성⑦

▲이규목⑤

▲이규형④

▲이기성②

▲이남근⑦

▲이대희④

▲이동윤⑨

▲이동혁⑤

▲황정선⁹⁴

◇農科大學

▲강명길⁶⁷ ▲강석원⁶⁹
 ▲강원봉⁶³ ▲강인평⁶⁹
 ▲강주성⁶⁹ ▲고일성⁷⁴
 ▲공재환⁷² ▲권혁⁸⁷
 ▲권순국⁶⁴ ▲권오완⁶⁰
 ▲권종석⁸⁴ ▲권태걸⁶³
 ▲김구용⁷⁶ ▲김문수⁶⁰
 ▲김병규⁶⁸ ▲김상철⁵³
 ▲김선태⁸⁸ ▲김성자⁶⁷
 ▲김성태⁷¹ ▲김성훈⁶²
 ▲김성훈⁸¹ ▲김연표⁵⁸
 ▲김영각⁵⁴ ▲김영수⁸⁰
 ▲김용구⁶¹ ▲김원훈⁵⁸
 ▲김재우⁷³ ▲김재철⁸¹
 ▲김주형⁷³ ▲김준환⁵⁵
 ▲김태수⁷⁵ ▲김판식⁸⁰
 ▲김후근⁵⁹ ▲김희창⁶⁵
 ▲노홍섭⁵⁸ ▲문장호⁶²
 ▲민선홍⁶³ ▲박동진⁷³
 ▲박동철⁶⁴ ▲박명규⁵⁷
 ▲박명근⁶² ▲박재욱⁶⁵
 ▲박종민⁹⁴ ▲박종택⁶⁸
 ▲박창규⁷⁷ ▲박창원⁹⁵
 ▲설권석⁵³ ▲손광훈⁶⁶
 ▲손석주⁸⁰ ▲송기수⁷⁷
 ▲송환창⁴⁹ ▲신경수⁸⁸
 ▲신덕현⁷¹ ▲신동소⁵⁷
 ▲신재인⁶² ▲신제성⁶⁵
 ▲안용태⁵⁶ ▲안인옥⁷⁷
 ▲양종성⁶¹ ▲양환승⁴⁹
 ▲오길현⁸⁰ ▲오충일⁶⁶
 ▲원광식⁶⁴ ▲유신상⁶⁰
 ▲유위종⁸⁰ ▲유지성⁶³
 ▲윤병일⁶⁰ ▲윤순찬⁸⁷
 ▲윤종대⁷⁰ ▲윤준상⁸⁹
 ▲이준⁸⁰ ▲이홍⁶¹
 ▲이강택⁶⁴ ▲이경구⁸¹
 ▲이경휘⁵⁹ ▲이광웅⁶⁸
 ▲이광호⁶⁸ ▲이군자⁶⁷
 ▲이기조⁶⁷ ▲이상구⁵³
 ▲이세웅⁷⁹ ▲이순실⁷⁸
 ▲이순혁⁶⁵ ▲이영일⁷¹
 ▲이옥연⁵⁷ ▲이원규⁶³
 ▲이장훈⁸⁹ ▲이정명⁶⁴
 ▲이종수⁷² ▲이준배⁹⁵
 ▲이태종⁸³ ▲이형구⁶⁹
 ▲이환수⁶³ ▲임정부⁶⁵
 ▲임진득⁷⁸ ▲장명희⁷⁷
 ▲장용인⁷⁴ ▲전영수⁸⁸
 ▲전현기⁷¹ ▲정기암⁶⁹
 ▲정연후⁶⁴ ▲정용규⁶⁶
 ▲정용문⁷¹ ▲정주영⁷⁴
 ▲조장호⁶⁵ ▲진용태⁶³
 ▲채상목⁸⁵ ▲천기만⁷⁷
 ▲최성익⁹³ ▲최재복⁵⁴
 ▲최홍립⁷⁵ ▲하영주⁸⁷
 ▲한인규⁵⁶ ▲한찬택⁵⁶
 ▲한한수⁷¹ ▲홍의표⁶⁵

◇文理科大學

▲강근택⁷² ▲강명순⁶⁵
 ▲강신택⁵⁹ ▲권영민⁶⁸
 ▲김광욱⁵⁹ ▲김기태⁶⁸
 ▲김문수⁶⁴ ▲김상욱⁷²
 ▲김선리⁶⁸ ▲김수진⁶¹
 ▲김용성⁵⁰ ▲김용진⁶⁴
 ▲김윤식⁶⁰ ▲김은자⁷⁰
 ▲김인걸⁷⁵ ▲김인식⁶⁷
 ▲김정희⁵⁶ ▲김준영⁵⁶
 ▲김현석⁶⁹ ▲김홍남⁷¹

▲김효근⁵⁷▲남대국⁶⁷▲노동일⁷²▲명건식⁷⁴▲박상우⁶⁴▲박익일⁷⁰▲박종표⁶⁴▲방경조⁶⁵▲배한룡⁶⁵▲변정선⁶⁶▲서원석⁵⁴▲서정욱⁶⁴▲신용대⁶⁴▲신준희⁶¹▲심상걸⁶⁵▲심재형⁶³▲안종식⁶⁴▲엄광석⁷³▲오경자⁷¹▲오재운⁶⁴▲유순애⁷⁴▲유지현⁷⁰▲유희열⁶⁹▲윤영관⁷⁵▲윤재근⁶⁸▲윤홍로⁶⁰▲이근택⁷³▲이동우⁶¹▲이만우⁵⁷▲이병한⁵⁶▲이병훈⁶²▲이영덕⁶⁶▲이우연⁴⁹▲이정세⁵⁷▲이창민⁶⁶▲이태숙⁷¹▲이홍운⁷⁰▲임용철⁶⁸▲장영태⁶⁹▲정세현⁷¹▲정태훈⁵³▲조성호⁵⁸▲주섭일⁵⁷▲지경렬⁷⁵▲최석동⁵⁸▲최정도⁶⁶▲한영성⁶³▲허용성⁶⁵▲홍성길⁶⁴▲홍승호⁶²▲황인광⁶⁷

◇美術大學

▲김근배⁶⁰▲김선희⁷²▲김영대⁷⁵▲김춘강⁶⁸▲노명자⁶⁷▲박근자⁵⁵▲성옥희⁵⁸▲오홍종⁵⁹▲이정혜⁹⁵▲이화지⁶⁴▲정경석⁶⁹▲차명희⁶⁸▲최상란⁶⁵▲최성숙⁶⁸▲하동철⁶⁵▲황인혜⁶⁹

◇法科大學

▲강용⁶⁵▲고환상⁸⁰▲김희준⁷⁰▲남상규⁷¹▲노현희⁶²▲민동필⁷¹▲박숙희⁷⁰▲박재만⁵⁸▲박형달⁶⁰▲방준영⁶⁷▲백재현⁴⁸▲서옥식⁷³▲서정수⁵⁶▲신영철⁶¹▲신재하⁶⁰▲심경보⁶⁵▲심상진⁷⁴▲안재현⁷¹▲양호민⁴⁹▲오거돈⁷¹▲오인환⁶¹▲원황상⁵⁶▲유제식⁵⁶▲유화선⁷²▲윤상철⁶¹▲윤용식⁶⁴▲윤재문⁷⁰▲이광호⁶⁵▲이동녕⁵⁰▲이동욱⁶⁹▲이광복⁶⁹▲이병혁⁷¹▲이승훈⁶⁹▲이용숙⁷⁵▲이재두⁵⁰▲이진희⁵⁸▲이춘재⁶³▲이평우⁵⁶▲임영률⁶⁰▲임정빈⁷⁴▲정미자⁷⁵▲정익성⁶¹▲조봉계⁶⁵▲조유전⁶⁶▲주은선⁶³▲최병두⁵⁸▲최영호⁶¹▲한승주⁶²▲한제근⁷¹▲현계순⁶⁰▲홍승수⁶⁷▲황보순⁶¹▲김선엽⁸⁸▲김성희⁸⁶▲김재훈⁸⁶▲김희성⁷⁷▲민경우⁷⁰▲박숙희⁶²▲심화자⁶³▲이승연⁶⁵▲이종희⁷¹▲전상수⁵⁵▲정영섭⁶⁰▲최명룡⁷⁰▲최석화⁶³▲최태만⁶⁵▲한옥희⁶³▲강신포⁷⁵▲공주렬⁵⁷▲고건호⁸²▲곽장흥⁸⁴▲곽태훈⁷⁶▲권영철⁷¹▲김경희⁶⁵▲김교창⁵⁹▲김남식⁶¹▲김동화⁸¹▲김상우⁶⁹▲김성훈⁶⁵▲김순영⁶⁰▲김을영⁶⁵▲김재를⁶⁹▲김지수⁵⁷▲김창지⁶⁰▲노철호⁶⁴▲박덕상⁶⁵▲박상욱⁷⁹▲박세철⁵⁵▲박완교⁵⁴▲박진호⁸⁷▲박형남⁸²▲방동춘⁶⁷▲백현기⁷⁵▲서상윤³⁷▲서주홍⁷⁷▲성민섭⁸²▲손관호⁵⁵▲송동원⁷⁴▲송홍섭⁷⁶▲신동희⁷⁸▲신진식⁸²▲안공혁⁶²▲오강근⁶⁸▲오병선⁷⁰▲오영권⁷³▲유도희⁵⁶▲유상호⁵⁹▲유수길⁶¹▲윤희선⁸⁵▲이광진⁸¹▲이근식⁴⁷▲이기원⁵⁷▲이동성⁶⁶▲이범주⁶⁶▲이상영⁶⁸▲이성웅⁶⁵▲이영원⁶⁵▲이재신⁶⁶▲이준근⁵⁸▲이진구⁷⁸▲이태권⁸⁵▲이효흥⁶⁷▲장상익⁷⁶▲장태진⁶⁶▲정승철⁶⁷▲정정검⁷⁰▲정중우⁶⁹▲정대세⁷²▲조관기⁶¹▲조승곤⁷⁴▲조용상⁶⁸▲조주은⁶¹▲지석영⁵³▲최영덕⁵⁹▲최종고⁷⁰▲최형구⁸²▲한강현⁸⁰▲현규호⁵⁷▲황규연⁸⁶▲황성진⁷⁰▲강점희⁸⁰▲구준희⁶⁰▲김경철⁷⁶▲김광조⁶⁴▲김거복⁷²▲김대식⁷⁹▲김상수⁶⁴▲김성조⁸⁹▲김수철⁷⁵▲김순중⁵⁷▲김인수⁶⁸▲김준철⁶¹▲김창국⁵⁸▲김하규⁷⁶▲박훈⁹³▲박동욱⁷⁰▲박석중⁵⁸▲박영준⁷⁰▲박주은⁴⁷▲박현순⁷⁷▲박희수⁷⁴▲배진권⁸⁰▲서복현⁸⁰▲서정석⁸¹▲서창훈⁸⁵▲성종욱⁶⁵▲송기동⁵⁵

▲나도선71
▲남기혁56
▲도상복65
▲맹호영85
▲박명환77
▲박세진48
▲박용춘55
▲박지용50
▲반미자85
▲서준석61
▲이기희77
▲이병성78
▲이수임79
▲이연희61
▲이중탁49
▲장진룡50
▲정구충80
▲정은희86
▲조중현72
▲차기현64
▲최진영68
▲최혜정90

◇音樂大學

▲곽상엽95
▲김성남51
▲김윤경66
▲김정숙72
▲김효준65
▲서혜연86
▲신영자67
▲윤병우65
▲이재민66
▲임성미88
▲장덕산73
▲정선영96
▲최현경94
▲홍은주80

◇醫科大學

▲고 홍75
▲고응린57
▲구분술50
▲김기진53
▲김봉식71
▲김성진47
▲김영구79
▲김재원57
▲김종민74
▲김호성82
▲박경덕86
▲박양희76
▲서철원83
▲송영욱80
▲신병준79
▲안재용50
▲원세재52
▲윤대영76
▲이병훈82
▲이수일75
▲이정우57
▲이종량86
▲이형묵52
▲장영길64

▲나현찬56
▲남준경50
▲도태준61
▲박명식52
▲박성주85
▲박영선54
▲박은영84
▲박형석90
▲배윤도41
▲유문자68
▲이범진84
▲이세민60
▲이숙경75
▲이인기77
▲이진규83
▲장충남65
▲정문상70
▲정형조49
▲진창배77
▲최진곤81
▲최형근63
▲황봉자65

▲정민화79
▲정중희84
▲조일균61
▲조태준87
▲주진순47
▲최용성77
▲최택규50
▲한갑수55
▲한덕호68
▲한석상58
▲홍기석74

◇齒科大學

▲권영오58
▲김광희56
▲김상천71
▲김용남74
▲김주영62
▲김축준52
▲김형식85
▲김화춘65
▲박두환57
▲박용세66
▲박창식71

◇音樂大學

▲김동수79
▲김수혜94
▲김일론63
▲김중곤68
▲박지수60
▲송영선75
▲유화자63
▲윤현주71
▲이정민88
▲임재원80
▲장원석96
▲조길자66
▲홍영자59

◇大學院

▲고재홍84
▲김성간76
▲박기용87
▲송석홍85
▲엄장일70
▲유광우81
▲윤보욱76
▲이명호78
▲이흥수88
▲정재일61
▲최원노64
▲현재선68

◇大學院

▲고재홍84
▲김성간76
▲박기용87
▲송석홍85
▲엄장일70
▲유광우81
▲윤보욱76
▲이명호78
▲이흥수88
▲정재일61
▲최원노64
▲현재선68

◇教育大學院

▲강영삼68

◇保健大學院

▲정운혁49
▲조승현49
▲조철구80
▲조효남84
▲최완주80
▲최원영62
▲최하진51
▲한기준58
▲한명현55
▲허윤석89
▲홍재웅67

▲권혁춘63
▲김기수84
▲김선영83
▲김정태74
▲김중수72
▲김현진60
▲김홍석65
▲박경호85
▲박성설57
▲박우찬72
▲박형국88

◇音樂大學

▲백대일75
▲백유선75
▲변광주42
▲설태희49
▲심연수88
▲오안민66
▲윤영준66
▲이규승62
▲이승범81
▲이승주61
▲이진태57
▲이태준80
▲장상욱74
▲정태연70
▲조종만70
▲주광섭79
▲진우정79
▲최낙준78
▲최순철79
▲한광현68
▲현성욱80

◇大學院

▲고재홍84
▲김성간76
▲박기용87
▲송석홍85
▲엄장일70
▲유광우81
▲윤보욱76
▲이명호78
▲이흥수88
▲정재일61
▲최원노64
▲현재선68

◇大學院

▲고재홍84
▲김성간76
▲박기용87
▲송석홍85
▲엄장일70
▲유광우81
▲윤보욱76
▲이명호78
▲이흥수88
▲정재일61
▲최원노64
▲현재선68

◇教育大學院

▲강영삼68

◇保健大學院

▲김대을76
▲이한구72

◇司法大學院

▲박인수68
▲진형구70

◇新聞大學院

▲김갑생71
▲유종일74

◇行政大學院

▲강병규77
▲송태준78
▲원희영69
▲이석희73

◇環境大學院

▲강은순74
▲이장수74
▲정양희82
▲주정렬89

◇최고경영자과정

▲강말길35
▲권석우15
▲권오철41
▲김계진2
▲김남호13
▲김동호15
▲김성규22
▲김수철4
▲김영인12
▲김재기23
▲김재운91
▲김차서19
▲남금자13
▲박유재9
▲박용언66
▲배창환99
▲서근석16
▲신현섭4
▲여상길20
▲유건수2
▲윤태하34
▲이길우15
▲이상영41
▲이상일27
▲이진선36
▲임성기26
▲장홍열39
▲정균화36
▲정필모2

▲이두호83
▲송정호68

▲김숙현74
▲이종화71

▲서동훈73
▲신성섭89
▲이광중70
▲한영환62

▲우명규76
▲정광섭76
▲조덕호86

▲강성철35
▲권오룡26
▲금세환40
▲김기웅15
▲김대규26
▲김석연9
▲김성득34
▲김성곤34
▲김영철35
▲김재성19
▲김진환6
▲김한성38
▲노석호30
▲박종구21
▲박현수36
▲백영배23
▲신성우32
▲심갑보3
▲우태명5
▲윤병호5
▲은승기40
▲이명복4
▲이상은33
▲이장호30
▲이현국13
▲임영훈14
▲전상기2
▲정기수17
▲조광호24

▲주영연9
▲최상득17
▲하재준11
▲한중희23
▲황승민26

◇최고산업전략과정

▲강호성15
▲김순태12
▲김신타3
▲김태열17
▲박용기3
▲박평서11
▲심규진12
▲이동건14
▲이창세6
▲임재룡17
▲지상철15

◇국가정책과정

▲고재정30
▲김극기43
▲김성현40
▲김진섭38
▲김한규20
▲김홍근11
▲문장인5
▲박영무42
▲성백관30
▲신옥수37
▲안준태43
▲유근환13
▲유재민19
▲이관범20
▲이균범8
▲이동호32
▲이종록23
▲이학동44
▲임 철42
▲임재환5
▲조강호37
▲차영화28
▲최귀남7
▲한행수44

◇고급금융과정

▲강호식2
▲김양걸8
▲김평주4
▲박창재7
▲서학석10
▲송광엽3
▲신충식10

▲최길성41
▲최애경3
▲하정우15
▲홍연석6

▲김상희4
▲김승길10
▲김인수10
▲박규영17
▲박주익11
▲백길현3
▲심재원17
▲이종대6
▲임우근7
▲조병오17
▲황교선5

▲권용량42
▲김병문23
▲김재홍10
▲김하준38
▲김행복27
▲문동명44
▲민경현8
▲서동열20
▲신동민11
▲안영철39
▲양창식3
▲유길종12
▲윤재우35
▲이규식44
▲이덕수44
▲이문기44
▲이치원13
▲이한용3
▲임 훈19
▲정석홍20
▲조부영12
▲천정자35
▲최정길44

▲안재봉4
▲이용식7
▲정갑재4
▲홍재문10

지 부

◇뉴욕

▲1,456,229원

◇싱가폴

▲820,000원

◇포항공대

▲강명호
▲구자강
▲김범만
▲김영수
▲김효태
▲남궁원
▲박홍준
▲오세영
▲이건홍
▲이정림
▲이필중
▲장수영
▲전중환
▲정무영
▲한종훈
▲홍기상

◇춘천교대

▲강태완
▲김광명
▲김상욱
▲김정휘
▲나병소
▲박준수
▲백정자
▲송환용
▲심우엽
▲이길종
▲이성영
▲이완섭
▲이형준
▲장병기
▲전홍열
▲한진구

▲고인수
▲김대만
▲김상우
▲김오현
▲남광희
▲박부건
▲송우진
▲원상철
▲이승섭
▲이진수
▲임기홍
▲전경훈
▲정 홍
▲정진욱
▲한해욱

▲권덕원
▲김남일
▲김완근
▲김춘선
▲박민수
▲배성제
▲성의용
▲신순임
▲원경열
▲이대형
▲이영문
▲이재봉
▲이환기
▲장성모
▲조동섭

월 계 : 60,786,229
'97임회비 : 22,952,000
'97누 계 : 650,686,765

1 월 계 : 6,870,000

절약합시다!

그러나 쓰실려면 「서울대동창회 국민신용카드」를

〈발급기간: 97년 12월 1일 ~ 12월 31일〉

개 인

◇社會科學大學

▲임종순80

◇工科大學

▲안시홍85
▲이삼형49

◇農生大學

▲김승환93

◇法科大學

▲김석영55

◇商科大學

▲안영목61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창회보에 게재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거나 신간서적 및 공연 안내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우편, 전화, FAX를 이용해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단과대학 및 졸업년도와 연락처를 정확히 써주시요.

(우)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702-2233 FAX: 703-0755